

안전진단 안 받은 BMW 2만대 전격 운행정지

정부 'BMW 사태' 대국민 담화

“국민안전 우선” 사상 초유 명령 발동
어기고 운전하다 화재 나면 고발조치
“BMW에 무상대차·편의제공” 요구
결함은 폐·능장리콜 처벌·개선 약속

정부가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2만여 대의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안전을 이유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만약 운행정지 명령에도 운전하다 화재가 날 경우 고발 등 강경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3·4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BMW 차량의 화재 사고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시행해 왔지만 전체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13일 자정 기준 2만7246대가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의 기본업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은 37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BMW 차량 운행 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5일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만약 운행정지 명령에도 운전을 강행하다 화재가 날 경우 정부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

경옥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화재 사고가 나면 고발할 예정”이라며 “운행 강행은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BMW 측에서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 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 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 제공도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한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

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 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결함 은폐·능장 리콜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주 52시간'의 명암 ② 제약사 영업사원의 분통

주말 초과근로 했지만 회사는 '자발'로 포장 결국 '수당'만 뺀 것

#중견 제약회사 영업사원 A 씨는 지난 주말에도 운전하지 못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돼 주말 심포지엄이나 학회는 변함없이 열리기 때문이다. 회사는 주말 행사 참석을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지만, 얼굴을 비추지 않으면 뒤쳐질 것 같은 심리적 압박감은 A 씨의 발걸음을 주말 학회로 향하게 한다.

#중소 제약회사 영업사원 B 씨는 일찌감치 '주 52시간'에 대한 환상을 접었다. 저녁 술자리 등은 명백히 영업의 연장선이지만, 회사는 이를 '자발적' 근무로 포장해 버렸다. 접대는 영업직군의 숙명이라고 생각해 봐도 때때로 찾아오는 상대적 박탈감은 B 씨를 괴롭힌다.



주 52시간 근로 시대를 맞이하면서 제약업계는 직군에 따라 다양한 근무 방식을 마련했다.

내근 직원들은 근무시간을 더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됐고, 불필요한 회의 대신 집중 근무시간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일부 제약회사는 PC 셋다운을 통해 초과 근무를 원천 봉쇄하기도 했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연구개발 인력에는 자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재량근무제를 적용했다.

문제는 영업직군이다. 제약회사들은 회사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영업사원의 특성을 고려해 간주근로제를 도입했다. 간주근로제란 영업사원처럼 사업장 외부에서 근무해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근무자와 합의해 소정의 근무시간을 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회사는 소정 시간을 8시간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을 인정하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간주근로제는 영업사원들의 근무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지 못하는 '뽕수 처방'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대다수 영업사원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나서도 종전과 다를 바 없이 일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간주근로제로 인해 회사가 초과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당을 받을 길마저 막혀 버린 곳도 적지 않다.

영업사원 C 씨는 “공식적으로는 주 52시간을 벗어난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발적 근로는 개인의 판단이라며 회사가 모른 척하는 셈”이라며 “실적이 아쉬우면 알아서 일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꼬집었다. 실적이 평가의 척도인 영업사원들에게 회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발적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는 이 같은 부당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영업직군의 간주근로제를 뛰어넘는 묘수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중견 제약회사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는 영업 마케팅 의존도가 높은 제약사 처지에서 부담스러운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간주근로제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처벌 유예기간에 제약회사들은 내부 조율을 거쳐 가장 적합한 근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제약회사 관계자는 “영업직군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미흡한 점을 개선해 모든 직원이 만족하는 방안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유혜은 기자 euna@

신한금융, ING생명 인수

지분 59.15%, 인수가 2조4000억 규모
가격협상 완료... 고용승계 등 막판 조율

신한금융그룹이 ING생명보험 경영권을 인수한다. 비은행 분야 역량 강화와 그룹 전체 순이익 증대를 위한 것이다. 양사는 가격 협상을 끝낸 후 직원 고용승계 등에 대해 막판 조율 중이다.

14일 금융권 및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ING생명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ING 지분 59.15%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주당 인수가격은 약 5만 원으로 총 인수가 2조4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인수가 이뤄질 경우 국내 보험업계 인수합병(M&A)

사상 최대 규모다.

신한금융은 16일과 17일 상반기 실적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정기 이사회를 연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이번 건을 정식 안건으로 부의하지는 않는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는 전혀 없으나 최종적으로 밑이 성사된다면 이후 이사회에 정식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래전부터 재협상을 진행해 최근 큰 틀의 가격 조율을 끝냈다”며 “신한생명과 ING생명이 합쳐지면 조직적으로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이 ING생명을 품에 안으면 KB금융을 누르고 금융업계 1위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의 올 상반기 누적 순이익이 1조7956억 원으로 KB금융의 올 상반기 실적(1조9150억 원)보다 1200억 원가량 적다. 지난해 300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올린 ING를 품으면 순위 역전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역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기존 신한생명(30조2724억 원)과 합쳐 4위인 NH농협생명(64조270억 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특히 2021년 도입되는 IFRS17을 앞두고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ING생명은 유럽계 보험사로 출발해 IFRS17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어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재무상태가 가장 탄탄한 보험사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ING생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4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3%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은 455.3%로 생명보험업계 최고 수준이다.

한편 ING생명은 지난달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오렌지라이프(OrangeLife)'로의 사명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반도체 이어 바이오株 '곤두박질' 반복되는 '외국계 리포트 잔혹사'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에 휘청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외국인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 특수성과 함께 '매도' 의견에 인색한 증권사들의 눈치 보기 실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관련기사 12면

12일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셀트리온, 한미약품, 유한양행의 주가가 동반 급락했다. 셀트리온은 전 거래일 대비 4.23% 급락한 26만5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역시 각각 7.44%, 2.39% 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보고서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은 셀트리온제약(-4.92%), 셀트리온헬스케어(-4.37%)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골드만삭스 여파로 코스피 제약 업종은 이날 4.71% 하락했다. 화학(-1.40%), 전기전자(-0.76%), 건설업(-2.77%), 유통업(-2.15%) 등에 비해 낙폭이 컸다. 코스닥의 약품 업종 역시 3.91% 하락했다. 제조(-3.62%), 운송(-2.90%), 음식료·담배(-2.24%) 등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골드만삭스는 셀트리온 보고서에서 투자 의견 '매도'에 1년 목표 주가를 14만7000원으로 제시했다. 한미약품에도 투자 의견 '매도'를, 유한양행에는 '중립'을 제시했다. 앞서 6일에는 모건스탠리가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비중 축소'로 낮추고 목표 주가를 7만1000원으로 내려 잡았다. 이에 SK하이닉스 주가는 3월 5일 이후 5개월여 만에 7만 원 선으로 추락했다.

지난해 11월에도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둔화할 것이라며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당시 삼성전자가 주가가 5% 이상 하락해 270만 원 아래로 밀린 바 있다.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에 증시가 휘청이는 이유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보유비중은 30%를 넘을 정도로 꽤 높다”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직접 글로벌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주요 외국계에서 나온 한국 기업 분석을 신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로 현재 국내 기업들의 성장세

둔화와 좋지 않은 증시 상황이 꼽힌다.

최 센터장은 “기업들의 전반적인 이익 예상치가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라며 “이익의 성장세가 옹골치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게 평가를 난 상태에서 외국인 사이에서는 유통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투자 심리 자체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약재에 크게 반응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신뢰도가 한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증권사 연구원은 “어전히 비우호적인 기업 보고서를 내놓으면 여러 정보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직·간접적으로 있어, 중립적이거나 완곡한 표현을 사용한다”며 “그러다 보니 국내 증권사들이 내놓는 보고서의 신뢰도가 낮아져 외국계의 의견이 더 주목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금감원 vs 생보사
즉시연금 법정공방 ▶6

'글로벌 명차' 세기를 넘나든 혁신 ▶16

전기차 빗장 풀리는 中
韓 배터리업계 '숨통' ▶17

모바일로 보는 이투데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내일 신문은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계속

한전 8147억 적자... 고민 깊은 김종갑 사장

〈상반기〉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연료비 상승 등으로 올해 상반기 8000억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흑자 전환을 위한 김종갑 한전 사장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전은 올해 1~6월 누적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1244억 원 감소한 -8147억 원(잠정)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2분기 기준으로는 6871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작년 4분기(-1294억 원), 올해 1분기(-1276억 원)에 이어 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냈다. 이는 2011년 4분기~2012년 2분기 이후 6년 만에 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낸 것이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것은 전기판매량 증가(4.1%)로 전기판매 수익이 1조5000억 원 증가했지만, 영업비용인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매비가 더 증가했기 때문이다.

박형덕 한전 기획본부장은 "미국의 이란 제재 등의 영향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유가가 33% 이상 급등했고, 유연탄 가격이 28% 동반 상승하는 등 국제 연료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영업비용의 32.5%를 차지하는 발전



국제유가 급등에 연료비 지출 상승... 3분기 연속 영업적자 늘 전력 구매비도 30% 증가... 부동산 매각·해외사업 추진 방침

자회사의 연료비 부담이 2조 원(26.7%)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러 "민간발전사로부터 사들인 전력의 총 비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 원(29.8%) 증가했는데 이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민간발전사의 천연액화가스(LNG) 단가 상승,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철 4개

월간 노후 석탄발전소 5기 일시 정지,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등 원전 정비 일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전의 실적 악화가 계속되면서 올해 4월 취임한 김종갑 사장으로서 하반기 흑자 전환을 위한 경영 전략 수립에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이 취임 당시 수익성이 개선되는 시점까지 '비상경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해온 만큼 하반기에는 새로운 변화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하반기 경영여건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분기에는 여름철 냉방 수요로 인한 판매량 증가와 높은 판매 단가가 적용되는 계절별 차등 요금체계 영향으로 2분기보다 전력 판매 수입이 늘어날 것인 판판이다. 또 보정조치 등이 이뤄졌던 원전의 경우 하반기엔 전체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수익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한전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전은 하반기에 유류 부동산 매각 추진 등 고강도 경영효율화, 원전 수주 등 신규 해외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하반기엔 이러한 실적 개선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연료비 상승 대비 전기요금 인상 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흑자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인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따른 3100억 원의 지원 손실분이 3분기 한전 실적에 반영된다는 점도 수익 개선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하반기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성장성 있는 기업에 혁신자본 공급 필요”

국가 차원 '이노베이션 팀 코리아' 신설 제안

“혁신성장 단계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 나가려면 혁신자본을 공급하는 일이 중요하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 하계 간담회에서 성장단계의 기업에 혁신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창업 초기의 벤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 회장은 “더 큰 성장을 위해 혁신자본이 필요한 기업에 정부의 제도적 공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자본시장이 성장성 있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창업 10년 내 기업가치 1조 원인 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역할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혁신자본을 공급하는 ‘이노베이션 팀 코리아’ 신설을 제안했다. 권 회장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내셔널 프로젝트(국가 차원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회장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1000억 달러 규모의 비전펀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손정의 회장이 2016년에 만든 110조 규모의 비전펀드는 이미 50% 이상의 자금이 투자됐다”면서 “한 회사에 투자되는 금액이 적게는 1조 원, 많게는 30조 원”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권 회장은 “중국과 인도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얼리 스테이지(초기)의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기술진흥원, 엔젤투자협회, 산업단지공단 등 혁신 관련 관계 기관과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협력 채널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며 “가능성 있는 기업을 추천해 자본과 연결하는 기본적인 일부터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여권) 도입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권 회장은 “룩셈부르크는 유럽의 작은 나라이지만 펀드 패스포트가 도입되면서 펀드 등록이 간편해진 것은 물론 법무 회계 감독당국의 서비스가 빨라지고 수만 명의 고용 창출을 이뤄냈다”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지 관계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자본시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도 협회 차원의 모범규준 정비 방침을 제시했다. 권 회장은 “신뢰의 문제이므로 협회, 회사, 금융감독원이 따로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말이나 9월 초에 협회 나름의 모범규준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쑥쑥 크는 ‘리니지M’ ... 직접 챙기는 김택진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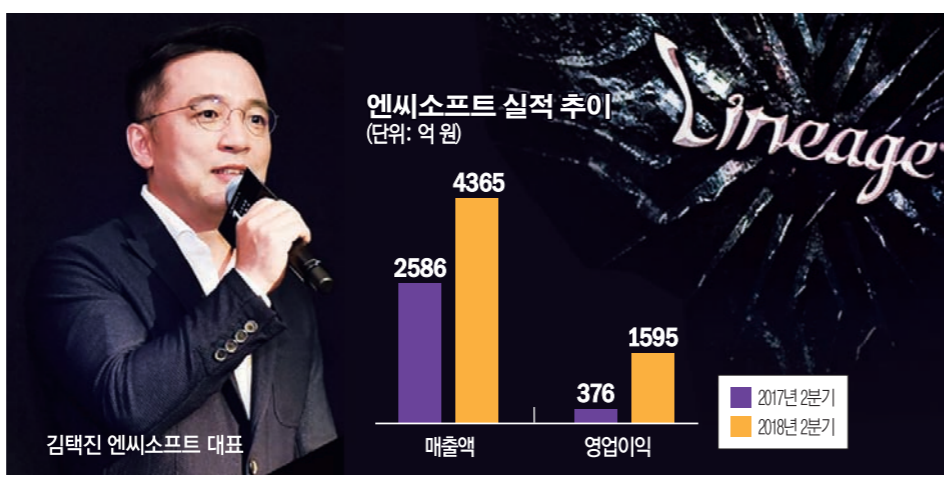
〈엔씨소프트〉

2분기 영업이익 1595억 325% 성장 TV광고 출연, 이름 판 쿠폰 발행 내달 ‘리니지 20돌’ 특별행사 기획 글로벌 버전 준비... 해외시장 공략

김택진의 엔씨소프트가 모바일 게임 ‘리니지M’ 효과에 힘입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엔씨소프트의 효자 게임으로 자리잡은 리니지M은 내년께 일본과 북미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59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24.61%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365억 원으로 68.76% 늘었으며 당기순이익은 1402억 원으로 354.92% 성장했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9116억 원, 영업이익은 3633억 원으로 창사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매출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국이 2959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북미·유럽 322억 원, 일본 85억 원, 대만 74억 원 순이었다. 제



품별로는 모바일 게임이 2099억 원으로 실적을 견인했으며 리니지 421억 원, 리니지 2 133억 원, 아이온 156억 원, 블레이드 & 소울 306억 원, 길드워2 199억 원 등이었다.

모바일 게임 매출은 전체 매출 중 48%를 차지하며 효과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중 리니지M은 모바일 게임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높다.

리니지M은 지난해 6월 21일 출시 이후 1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연매출 1조7587억 원을 기록하며 ‘1조 클럽’에 가입했으며 올해에는 연매출 2조 원에 도전하고 있다.

김택진 대표는 성장을 이끌고 있는 리니지M을 직접 챙기며 애정을 표시해왔다. 김 대표는 5월 진행된 리니지M 1주년 행사인 ‘YEAR ONE’에 참석해 서비스 방향과 비전 등을 직접 발표했다. 김 대표가 공식석상에

나선 것은 2015년 12월 ‘리니지 17주년 간담회’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또 리니지M TV 광고에 직접 출연하는가 하면 본인의 이니셜을 딴 ‘TJ’s 쿠폰’ 등을 제작하며 게임을 알리는 데 주력해왔다.

김 대표는 올해 또 한번 리니지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원작 리니지는 1998년 9월에 출시된 게임으로 올해로 딱 20주년을 맞는다. 엔씨소프트 측에서는 리니지 20주년을 기념해 관련 행사를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념 행사에 김 대표의 등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그가 공식석상에 나설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뿐만 아니라 리니지M 글로벌 버전을 개발해 해외 시장도 공략할 방침이다. 일본과 중국, 북미 시장 등을 겨냥한 별도의 리니지M을 새롭게 개발해 직접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리니지M이 진출한 국가는 대만이 유일하다.

조성준 기자 tiatio@

www.kepco.co.kr

세계 최고를 넘어, 新에너지 세상으로 -

섬은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햇살이, 바다가, 바람이 내일의 빛을 만들어줍니다.

자연에서 전기를 만들고 마법처럼 담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전력이 꿈꾸는 깨끗한 에너지 세상입니다.

세계 1위 전력회사를 넘어 깨끗한 에너지 생태계를 선도하는

Beyond the Top, Leading KEPCO-

국토부에 차량화재 현장조사권·결함 신고정보 DB화

車 리콜제도 전면 개편 추진

사상 초유의 제작결함 수입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자동차 리콜 및 제작결함시정 제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법적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편, 제작결함의 사전 예방 및 처벌 강화, 조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도적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긴급 안전진단 미이행 BMW를 대상으로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전국 시군구청장에게 요청했다. 사실상 제작결함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문제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BMW 운행정지 명령을 시작으로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대대적인 법적·제도적 정비 마련에 나선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달 7일 국무회의를 통해 "BMW의 뒤늦은 사과와 이들이 자목한 화재 원인이 국민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대처 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며 "법령의 제약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총리의 발언 이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 및 관련해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과거와 달리 직접 제작결함을 밝혀내고 단순하게 제작사가 발표하는 자발적 리콜 접수 이외에 활동영역 확장에 나섰다. 제작결함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토부는 BMW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강화에 나선다. 제조물 책임법을 근거로 제작사의 책임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규모를 강화하겠다는 초치다. 피해액의 3배 수

국토교통부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 개선안

- 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개선 방안 추진
- ② 결함 은폐 관련 자동차 제작사 처벌 규정 강화
- ③ 능력리콜 과징금 부과기준 및 규제 강화
- ④ 국토부 '차량화재' 현장 직접 조사권 부여
- ⑤ 결함 신고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착수
- ⑥ 사고 정보 축적 때 국토부 즉시조사 착수
- ⑦ 조사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제작결함 자동차 첫 운행정지 명령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실효성 강화 동일결함 반복 땐 국토부 즉시조사 안전연구원 독립성·전문성 강화도

준인 상한선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피해액의 3배 수준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선을 10배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둘째, 결함 은폐가 확인되면 해당 제작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보다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결함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엄격하게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넷째, 이번 화재 사건을 계기로 결함에 따른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 및 조사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이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사권 부여를 검토 중이다. 경찰 및 소방 등 수사권을 지닌 기관과 유사한 형태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동일한 결함이 반복해 발생할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리콜 대상 여부를 국토부가 직접 조사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결함신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BMW 화재 관련 더불어민주당 긴급 간담회에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12일 경기도 평택시 BMW 차량물류센터 인근에 BMW 리콜 대상 차들이 서 있다. BMW코리아에서는 평택항에 리콜 부품인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가 도착하면 이들 차량에 대해 교체 작업을 한 뒤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게 된다. 연합뉴스

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계획도 내놨다.

앞서 김현미 장관 역시 "결함 조사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독립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동차 제작사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자

동차 제작결함 시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무부처로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BMW "긴급 안전진단 무기한 연장" 점점 길어질 경우 논란 장기화 우려

문자메시지·이메일 통해 점검 독려 목표시한 14일은 심리적 마지노선 이후 재발 땐 브랜드이미지 치명타

BMW가 목표 마감 시한 안에 긴급안전점검을 모두 마무리하기 힘들어졌다. 13일 기준으로 긴급안전진단 대상 차량은 10만6000여 대 가운데 7만3000여 대의 점검이 진행됐다. 긴급안전점검 목표 마감 시한인 14일 8000여 대의 차량이 점검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약 8만1000대 차량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목표 마감 시한 내에 긴급안전점검이 이뤄지는 차량은 전체 대상 차량 가운데 76.4% 수준인 셈이다.

문제는 기한 내에 긴급안전점검을 받지 못한 2만5000여 대 차량이다. BMW 측이 목표했던 긴급안전점검 마감 시한이 끝나더라도 안전점검은 지속될 예정이지만, 정작 소유주가 안전진단을 받을 의사가 없으면 해당 차량은 '거리 위의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강제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전날 국회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고객에게 서둘러 점검을 받아주시기를 호소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BMW 측에서도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조속히 차량 점검을 받을 것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에도 일각에선 10만6000여 대에 대한 안전점검이 모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점검을 받지 못한 차량 소유주 가운데 이른바 '대표차'로 불리는 무연고 차량이 상당수 섞여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차량

BMW 차량 리콜 일지 *2018년 기준

날짜	내용
7월 16일	국토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 결함 조사 지시
25일	BMW코리아, 국토부에 리콜계획서 제출
26일	BMW코리아, 총 42개 차종 10만6000여 대 자발적 리콜 발표
27일	국토부, 리콜 명령
8월 3일	국토부, '운행 자제' 권고
14일	국토부, '운행 중지' 명령

의 경우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차량으로 소유자가 신상 정보 공개를 극도로 꺼린다. 이런 이유에서 대표차 소유주의 경우, 앞으로 안전점검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표차가 점검 차량에 포함돼 있으면 문제는 커진다"며 "정부가 이런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전점검 기간이 늘어날수록 BMW의 속은 타들어 간다. 이미 국토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 중지를 결정하면서 '결함 브랜드'라는 꼬리표를 지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안전점검 기간이 늘어나면 차량 화재 논란은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BMW로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

BMW가 긴장하는 이유는 또 있다. 14일 이후에 화재가 재발하면 브랜드 신뢰도에 대한 타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때문이다. 긴급안전점검 목표 마감 시한인 14일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BMW 화재 마감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업계의 중론이다.

김 회장은 전날 국회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 가운데 1대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했지만 '직원 과실'에 불과하다"며 "주·정차 시에는 절대 불이 안 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리콜 대상 차량이 아닌 'M3' 기술된 모델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과 차량 소유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KB금융그룹

가족의 희망 잘 아니까 KB손해보험이 안아드릴게요!

엄마건강, 아빠건강, 아이건강...
얼마나 바라는지
얼마나 원하는지
얼마나 지키고 싶는지 잘 아니까

KB손해보험이
든든하게 안아드릴게요

희망을 안다
희망으로 안다

무배당 KB The드림365건강보험

• 손해보험업의 심의필 제2811호 (2018.04.23)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 고객센터: 1544-0114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지급 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KB 손해보험

與野 “징벌적 손배제 강화” 한목소리...적용대상 놓고는 이견

BMW 화재 여파 관련 법 개정 논의 속도

민주 “모든 제조물 대상으로...제조물책임법 개정해야”
한국 “車에만 국한 ‘자동차관리법’...산업계 위축 우려”
현행 3배 배상액 확대도...文, 대선 때 “피해액 10배로”

최근 잇따라 BMW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한목소리로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여당은 제조물 전체에 대한 피해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자동차 기업에 한해 책임을 지우자는 입장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에서 9월 정기 국회에서 제도 개선의 뜻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BMW 화재사고를 계기로) 안전 생명에 직결된 심각한 품질 문제에 있어 제도적으로 부족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도 미흡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BMW 포비아(공포증) 확산을 줄이고 제조사가 고의적, 악의적

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하도록 한 제도다. 4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 책임법(PL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무늬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해 이번 BMW 사건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배상을 기대하려면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개정할 경우 모든 제조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인 박순자 한국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제작사의 결합 입증 책임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자동차 관리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모든 제조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가 산업계를 위축시킬 우려에서다. 박 의원은 “이번 BMW 사태는 자동차 분야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강화 대상뿐만 아니라 피해 액수도 논의 대상이다. 현행법은 피해의 3배까지만 손해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배상액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데다 지금까지 인정받는 손해액 자체는 기껏해야 1배를 조금 넘기는 수준에 그친다. 국회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국내에 도입돼 있지만 3배를 인정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피해액의 10배’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민주당도 당론으로 제조물 책임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정기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세부 논의는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늬 기자 honey@

‘원격의료 도입’ 여당 눈치보는 정부

의원들, 이전 정권 ‘적폐 청산’ 대상으로 비판
박능후 장관 ‘도입 필요’ 발언했다 물러서기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장관관계장관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무산됐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놓고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원양어선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과거 원격의료를 ‘적폐’로 규정했던 여당 탓에 공식적으로 말도 못 꺼내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바이오헬스를 8대 선도사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는 원격의료와 연관이 깊다.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원격의료 장비 개발·상용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다.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원격의료 도입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가 지금 바이오헬스를 염두에 둘 때에는 ‘100% 원격의료를 포함해야 한다’ 또는 ‘100% 제외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원격의료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못 내는 배경에는 여당의 강고한 태도가 있다. 원격의료는 18·19대 국회에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회기만료로 폐지됐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됐으나 안전성 우려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

을 이른바 ‘의료 영리화’ 법안들과 묶어 처리를 반대했다.

당시 상황은 여전히 유효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후 박 장관은 의사-환자가 아닌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을 바꿨다.

같은 이유로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는 바이오헬스 사업에서도 당분간은 원격의료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내년에는 바이오 융합 기술 연구개발(R&D) 지원과 맞춤형 정밀의료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7월 수입물가 89.81...7개월 연속 상승

유가 관련 품목 중심 오름세...원·달러 급등분 빼면 2개월째 하락

7월 수출입물가는 원·달러 환율 급등 영향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환율 요인을 제외하면 되레 두 달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7% 오른 89.81(2010년 100 기준)을 기록했다. 올 1월(0.7%)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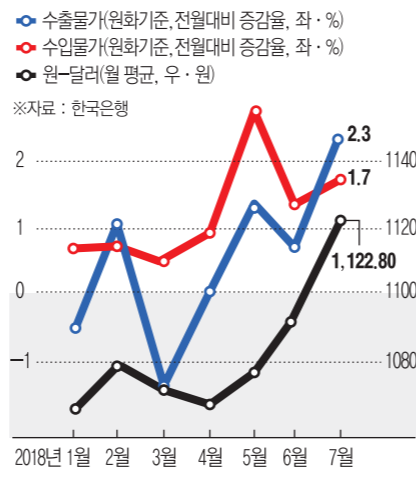
수출물가지수도 전달보다 2.3% 오른 87.56을 보였다. 이는 2016년 12월 3.1% 상승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지수 기준으로는 각각 2014년 11월(91.23, 88.57)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실제 7월 평균 두바이유는 배럴당 73.12달러로 전월(73.61달러)보다 0.7% 하락했다. 반면 원·달러 평균 환율

은 전월 대비 30.0원(2.7%) 급등한 1122.8원을 보였다.

환율 요인을 제거한 계약통화 기준으로 보면 수출입물가는 각각 전월보다 0.2%와 0.8%씩 떨어지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수입물가는 지난해 6월(1.8% 하락)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본 수입물가는 12.2% 올랐다. 지난해 1월(13.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수입물가가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라는 점에서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살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실제 두바이유를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보면 53.7% 올라 2개월 연속 50%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도 원유(지난해 같은 달보다 52.1%)와 나프타(53.7%), 메탄올(42.5%) 등 석탄 및 석

수출입물가·원달러환율 추이



유·화학제품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박상우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환율이 오르면서 전월비 수출입물가가 다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유가와 환율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연결 고리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수입물가는 소비자물가에 선행한다. 향후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1 소위에 추혜선 의원 포함? 2 여당 내 반대? 3 지분 제한 ‘재벌’ 범위는? 대통령도 나선 ‘은산분리 완화’ 3대 관문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큰 틀에서 법안 처리를 합의했지만 법안의 첫 관문인 정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과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반발 등 여전히 넘어야 할 관문이 많은 데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도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8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려면 애초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첫 관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될 전망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금융 부문을 다루는 법안1소위 배정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만일 포함된다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의사결정이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과 달리 소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

여당 내 이견이 여전한데도 점도 결렬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주문 사흘 뒤인 이달 10

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여야가 잠정 합의한 34%에서 15~25%로 대폭 축소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규제 완화에 대한 민주당 내 반대 기류가 표출된 것이라는 것이 여야 안팎의 시각이다.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제한 대상인 ‘재벌’(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의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현재 인터넷은행을 영업 중인 카카오의 경우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조만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말썽히 영업하다 한순간 면허가 중단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정재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을 중점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경우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은 “지금 영업 중인 인터넷은행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네이버 등 향후 시장 진입 가능성이 있는 기업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가 아닌 능력을 바라볼 때,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아르헨티나·인도...신흥국 통화 동반 추락

터키발 패닉 확산

터키 리라화 추락의 충격이 쓰나미처럼 세계 경제를 덮쳤다. 리라화 가치가 대폭 하락하자 다른 신흥국의 통화도 심각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도 타격을 입었다.

1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기준금리를 종전보다 5%포인트 인상한 45%로 결정했다. 터키 리라화의 폭락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불안이 페소화로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중앙은행은 성명에서 "해의 정세와 물가 상승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10월까지 금리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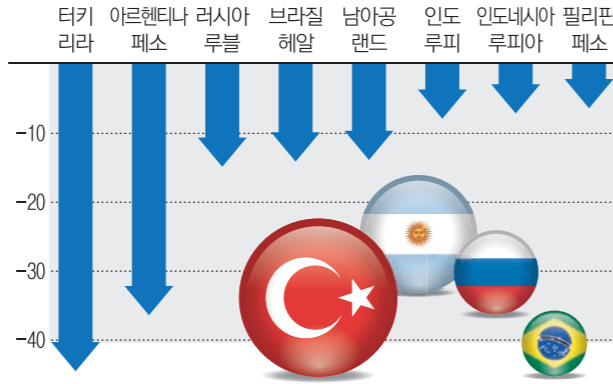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7월 들어 달러당 페소는 27페소대로 안정을 보였으나 터키 리라화 위기로 인해 최근 가치가 하락했다. 이날 달러-페소 환율은 장중 30페소로 사상 최고치(페소화 가치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터키 리라화 가치는 달러당 7.2리라 전후까지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를 새로 썼다.

이날 통화 하락세는 신흥국 전반에서 나타났다. 인도 루피화 가치는 달러당 69.6885루피로 장중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 가치는 달러당 15렌드로 2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터키 리라화와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 하락폭은 40% 안팎에 달한다. 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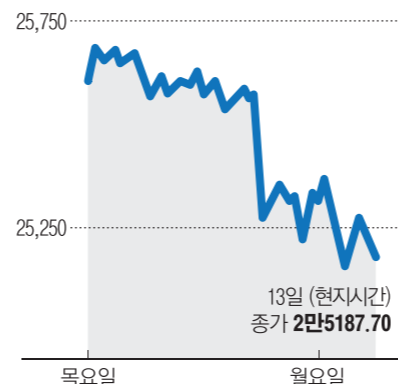
달러 대비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률

(단위: %, 지난해 말-8월 13일 기준)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뉴욕증시 다우지수 추이

*출처:마켓위치



페소·루피화 가치 장중 사상 최저

아르헨티나 금리 45%로 긴급 인상

"최소 10월까지 인하 계획 없어"

신흥국 달러빚 10년 새 2.4배

통화 약세로 사실상 '시한폭탄'

뉴욕 등 글로벌 증시 줄줄이 폭

"투자자들, 위험자산 멀리할 것"

시아 루블화와 브라질 레알화도 10% 넘게 하락했다.

신흥국들은 통화 약세로 여러 문제에 노출된다. 수입물가가 오르고 외화 상환 부담이 커진다. 외환보유액보다 외채가 많으면 상황에 차질을 빚게 된다. 터키의 대외 채무는 4500억 달러(약 510조3000억 원)로 외환보유액의 약 4배이다. 인도네시아는 약 3500억 달러, 아르헨티나 2300억 달러에 달해 각각 외환보유액을 웃돌고 있다. 터키는 향후 1년 동안 외화 채무 상환과 경상 수지 적자의 보충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200억~230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

부채 팽창은 신흥국 대부분이 안고 있는 '폭탄'이다. 저금리 국면이 오래가면서 달러 표시 채무

는 지난해 약 3조70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의 약 2.4배에 이른다. 통화 가치가 하락해 상황이 어려워졌으나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 강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며 터키 정부의 미국인 목사 구속 등으로 제재와 관세 인상 등 보복 조치를 표명했다. 터키 측은 미국과 대립을 심화하면서 적절한 대책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날 글로벌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5.44포인트(0.50%) 하락한 2만5187.70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11.35포인트(0.40%) 내린 2821.93을 기록했다. 나스닥 지수는 19.40(0.25%) 하락한 7819.71에 마감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600은 0.95포인트(0.25%) 내린 384.91을 기록했다.

제너럴 엘리슨 BOS 대표는 "투자자들은 터키와 같은 이슈에 대해 조심스러울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자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세 루이스 다자 QSR캐피털매니지먼트 최고 투자책임자(CIO)는 "터키의 문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중앙은행 간섭하던 터키 대통령...반미·금리실책 '자책골'

에르도안 비판 고조

금리 인상 꺼려 인플레이션 심화
미국인 목사 감금, 대미 관계 악화
터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

리라 붕괴 등 터키가 최근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런 위기를 초래한 것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터키가 2001년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접근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성장률로만 보면 터키 경제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7.4% 증가해 성장률은 2017년 전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수년 동안 정부가 주도한 신용 폭탄에 경제가 풀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경상수지 적자는 4월에 54억 달러로(연율 환산=GDP의 6% 이상) 증가했고, 외국인직접투자는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터키 기업들은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이상인 3000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에 신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리라화 폭락은 에르도안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대사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날 리라화 폭락과 관련해 '미국이 전략적 동반자의 등에 칼을 찌었다고 맹비난했다.' 앙카라/AP연합뉴스

전문가들은 현재 터키를 위기로 내몰 이유를 3가지로 꼽고 있다. 원인으로 해법도 모두 에르도안의 리더십 문제로 귀결된다.

우선, 에르도안이 금리인상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보통,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상

승한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해 통화 가치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맞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에르도안의 눈치를 보느라 찔끔찔끔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상황이 좋지 않다. 시장에서는 터키 인플레이

션율이 16%에 육박하고 있어 기준금리를 현재 17.75%에서 더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에르도안은 "금리인상이 인플레이를 조장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펴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지나치게 막강한 권력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7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21세기 술탄'이라는 별칭까지 얻은 에르도안은 2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정치 신예인 사위 베라트 알바이라크를 경제 정책의 사령탑인 재무장관 자리에 앉히는가 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통제권을 수년 내에 행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에르도안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까지 좌지우지하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세 번째는 미국과의 대립이 꼽힌다. 2016년 7월 터키에서 쿠데타 미수 사건이 일어났다. 터키 정부는 에게해 연안에서 20년 가까이 교회를 운영해온 미국인 앤드루 크레이그 브랜슨 목사가 쿠데타에 관여했다고 보고 2016년 10월부터 그를 감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터키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이 지난 1일 인권 침해해 이유로 터키 각료 2명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 양국이 최근 미국에서 협상에 나섰지만 이마저 결렬되면서 미국의 새로운 제재 조치 발동으로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올리기로 해 리라화 폭락을 촉발했다. 배수경 순회특파원 sue6870@

佛 플라스틱 페널티 도입 매립세 인상, 부가세 차별



프랑스 정부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페널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환경부는 2025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100% 재활용으로 전환한다는 목표와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을 매립할 때 부과하는 세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활용이 아닌 플라스틱을 사용한 상품에는 2019년부터 최대 10%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인하할 방침이다. 재활용 처리 작업에 대한 세금도 낮춘다. 재활용 플라스틱 용품에 경제성을 부여해 시장에서 기존 플라스틱 용품을 밀어내겠다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전체 플라스틱 중 25%만 재활용된다. 유럽통계청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50%이다. 이미 상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은 금지됐지만, 프랑스는 유럽집행위원회(EC) 기준에 부합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하고자 한다.

환경단체들은 상수를 들고 반기고 있으나 원재료 제조업체는 불만을 표한다. 플라스틱 제조업체 엘립소의 이마뉴엘 귀사르는 "병 같은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지만, 재활용 요구르트병은 있을 수가 없다"며 대체 불가능한 상품도 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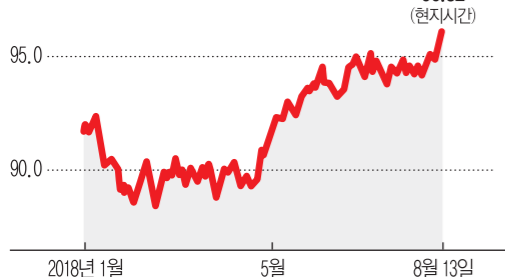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40% 증가했다. 매년 약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진다. 유엔은 6월 5일 세계환경의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음식 용기를 금지하거나 과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임소연 기자 ronsoyeon@

달러, 세계 경제 최대 걸림돌 부상

신흥국 넘어 유로·엔화까지 악영향
미국도 수출경쟁력 갈수록 떨어져

ICE달러인덱스 추이

*출처:마켓위치



미국 달러화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에 최대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2018년 세계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로 달러화를 꼽았다.

달러화는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외환시장 규모는 5조1000억 달러(약 5783조4000억 원)에 이르며 달러화는 세계 거래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보유금 10조4000억 달러 중 62.5%가 달러화다. 유로화의 비중은 20.4%에 불과하다.

미국 자본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동적이며 자금을 투자받으려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시장

이다. 달러 환율은 금융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 중 하나로 언급된다.

미국은 최근 불거진 글로벌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무역전쟁 등은 불안감을 키웠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경제의 파괴자가 된 순간에도 달러 자산은 매력적인 것으로 판명됐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비교적 안전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달러화는 신흥국들은 물론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나타냈다. 달러화 가치는 지난 2분기에 유로화 대비 5.5%, 엔화 대비 4.2% 각각 상승했다. WSJ는 달러의 급격한 상승이 경제와 산업에 변화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는 성장세를 보인 반면 다른 국가의 경제는 예상치 못한 달러 강세로 휘청였다.

하반기에도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면 신흥국 시

장의 약점이 노출되면서 도미노처럼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WSJ는 전망했다. 최근 터키 리라화를 비롯한 달러화 대비 신흥국 통화의 붕괴는 글로벌 시장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터키 경제와 관계가 깊은 유로화가 최근 동반 하락하고 있다. WSJ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 위안화 약세도 신흥국 통화 연쇄 하락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달러 강세는 미국 경제에도 걸림돌이다. 최근 미국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2분기 4.1%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 매출의 달러 환산 가치가 낮아져 미국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다. WSJ는 S&P500 기업들이 달러 강세가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실적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혜 기자 winjh@

즉시연금 갈등, 결국 법정공방

삼성, 가입자 대상 채무부존재 소송
한화도 분쟁조정 거부... 갈등 첨예

금감원, 8년 만에 소송지원제도 자동
변화사 비용 등 최대 3000만원 지원

즉시연금 과소지급을 둘러싼 생명보험사와
금융당국의 신경전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감원 분
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은 A 씨 1명을 대상으
로 전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
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추
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
효(금감원 분조위가 처음으로 지급을 권고한 지
난해 11월 이후)와 무관하게 전액을 지급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1월 즉시연금 약관
에서 이미 적립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삼성생명에 민원인에게 과소지급금을 주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 역시 이를 수용했다. 하지
만 금감원이 조정안을 5만5000명(4300억 원
규모) 모든 가입자에게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
하자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거

즉시연금 논란 일지

2017년	6월	A 씨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권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 제기
	11월	분조위, 삼성생명 즉시연금 과소지급 지급 권고
2018년	2월	삼성생명, 분조위 결정 수용...민원인 1명에게 보험금 지급
	3월	금감원, 전 생보사 관련사안 동일처리 방침 통보
	7월	금감원, 삼성생명에 일괄구제 권고 삼성생명, 이사회 통해 일괄구제 권고 거부
	8월	한화생명, 분조위 권고 거부 금감원, 8년 만에 소송지원제도 자동 삼성생명, A 씨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부했다.

두 번째로 즉시연금 과소지급금 규모가 큰 한
화생명(2만5000명, 850억 원) 역시 9일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
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그 이유는 삼성생명과
같다.

이에 금감원은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A 씨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 씨 사
례가 금융분쟁조정 세칙에 규정된 소송지원 요건
(분조위가 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
성이 큰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송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

다. 심급별 1000만 원씩 최대 3000만 원까지 지
원한다. 또한 보험사와 민원인의 '정보비대칭'
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은 민원인 요청을
받아 해당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나 내부 자료
등을 법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하는 건 2010
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8년간 6건이 접수됐지
만, 모두 지원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 법정 공방이 개시되면 사실상 첫 '대리
전'이 벌어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현 금
감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견해를 밝힐 예
정이다.

업계 1위와 당국의 날 선 신경전에 생명보험업
계 긴장감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논란만 키우다
결국 일괄지급으로 결론지은 자살보험금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생보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일괄지급 거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될지 가
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논란만 키우다가
모두 지급하게 된 제2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년 전 생보
업계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모두 내라는 금
감원의 요구에 맞서 버티다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라는 고강도 제재에 결국 백기를 들었
다.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했다"며 "제2 자살보험금 사태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인터넷銀 허용' 대기업 어디까지? 딜레마 빠진 은산분리 완화 법안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추진에 발
벗고 나서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대감이 커
졌다. 그러나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사업을 얼마
나 허용할지 등 해결할 쟁점들이 남아 있다.

14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
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를 담당하
는 1소위는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중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
국당 4명, 바른미래당 1
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
자본(비금융주력자)의
금융회사 자본 보유 한도를 25%나 34%, 50%
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제정안 4건과 은행법 개정안 2건 등 총 6건이 올
라가 있다.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
는 금융회사 지분을 전체의 4% 이상(의결권 없
으면 10%)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 새 법안들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쟁점은 '대기업'의 인터넷은행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이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개인 총수가 있는 대
기업 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

업)을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 카
카오뱅크 대주주 후보인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은산분리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카카오는 총수가 있고, 자산이 8조5000억
원에 이르는 등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자산이 7조1000억 원에 이르는 네이버 역시 제
3 인터넷은행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은 현재 이들 기업에 혜택을 줄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케이뱅크는 은산
분리 완화에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케이
뱅크 대주주인 KT가
자하철 광고 IT시스템 입
찰 과정에서 잠꼬미한 혐

의로 2016년 3월 벌금 7000만 원이 확정됐기 때
문이다. 은행법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넘
게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시행령은 이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법 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금융위가 위반 정도를 경미하다고 판단하
면 승인이 가능하다. 애초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서 불거진 특혜 논란 역시 골칫덩이다. 22일 열
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총수 있는 대기업 제외' 규정
카카오·네이버도 진입 막혀
'ICT기업 예외적용' 손질 예상
케이뱅크 'KT 리스크' 골머리**

"부실 오명 벗자"... P2P업계, 자정 노력

협회 두달여간 '자율규제안' 마련... 이번 주까지 60개 업체 의견수렴

한국P2P금융협회가 두 달여간 자체적으로 만든
자율규제안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
로 창설을 준비 중인 새 P2P협회에서도 자율규제안
을 내놓는 등 P2P 부실에 대한 자정 작용이 본격화
하는 모양새다.

13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회원사
에 이름을 올린 60개 P2P업체들로부터 자율규제안
에 대한 의견을 이번 주까지 수렴한다. 자율규제안
에는 △대출자산 신탁화 △투자자 유의사항·상품소개
서 정형화 △회원사 전수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문제제기나 큰 이견이 없는 경우 해당 안을 이사회에
올려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이 끝나면 협회는 매달 두 번째 화요일에
열리는 정기 이사회나, 그 전 임시 이사회에서 자율
규제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만약 업체들이 자
율규제안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늦어도 내달 4일
전까지는 안건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P2P협회에서 탈퇴해 나온 몇몇 업체들이 설
립을 추진하고 있는 새 P2P협회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 도 자율규제안을
공개했다. 해당 안의 골자는 전체 대출자산 중 부동
산PF 자산을 30%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준비위 관
계자는 "현재 P2P금융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과도
하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규제안에 담았다"고 밝혔

다. P2P협회들이 이처럼 자율규제안을 잇따라 내놓
는 것은 현재 P2P업체들이 부동산 대출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있고, 여기서 부실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준비위에 따르면 2월 말 P2P금융산업에서 PF대
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4%다. PF
대출의 연체율과 부실률은 각각 5%, 12.3%로 전체
평균 2.8%, 6.4%의 두 배에 이른다. 이런 구조적인
쏠림 현상은 실제로 부동산PF 비중이 높은 업체들
을 중심으로 도산까지 이어지고 있다. 헤라펀딩은 5
월 부도를 내고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오리펀드와
더하이원펀딩 대표는 허위로 동산 담보 대출 상품을
만들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고, 아나리츠
대표도 허위로 부동산PF 대출상품을 만들고 돌려막
기를 통해 1138억 원을 모집한 혐의로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협회 차원의 자율규제가 아니라 법적
화를 통해 정부, 당국에서 직접 규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서 법적 한
계가 발생하고,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은 P2P대출
플랫폼 법인에 대한 직접 규율을 하지 못했다"며 법
제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P2P금융 관련 법안은 4
건에 달한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신한은행·카드 87개 서비스 하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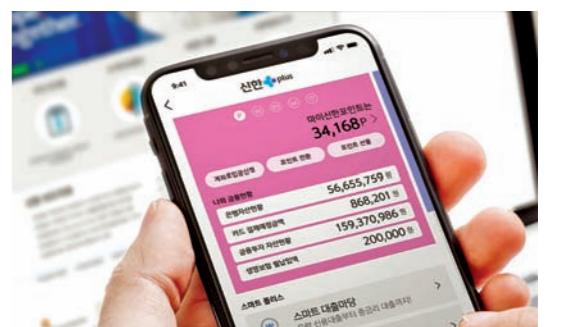
새 통합 금융 플랫폼 '신한플러스' 출시

신한금융그룹은 13일 그룹의 통합 리워드 플랫폼
인 '신한 FAN 클럽'과 금융권 최초 통합 모바일 플
랫폼인 '신나는 한판'을 결합한 금융 플랫폼인 '신한
플러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한플러스'에는 은행, 카드, 금투, 생명의 87개
주요 서비스 및 통장·카드 동시 개설 서비스 등 그
룹사 간 비대면 완결서비스가 탑재됐다. 또한 '신한
플러스'를 통해 고객이 보유한 그룹의 통합 리워드
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다.

신한금융은 네이버페이, 훌플러스, 항공사 마이리
지 등 다양한 제휴를 통한 포인트 전환 서비스와 포인
트 전용 상품물 운영 등 신한 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리워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룹의 중금리 대출
상품을 신용도 하락 없이 한 번에 조회 가능한 금융권
최초의 그룹 중금리 신용대출 플랫폼인 '스마트대출
마당'도 '신한플러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고객별 맞춤 상품을



제안하는 '금융 큐레이터', 구글·네이버 캘린더와
연동해 자동이체, 카드결제일 등 각종 금융 일정을 확
인할 수 있는 '금융캘린더' 서비스 등 다양한 고객 맞
춤 서비스를 장착해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신한플러스'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신한
은행 대표 앱인 SOL, 신한카드의 FAN 앱, 신한금
융투자의 신한일파, 신한생명의 스마트창구앱의 메
인화면에 위치한 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
어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가족 곁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함께 해왔던 **한화손해보험**

가족 모두의 삶, 그 가까이에서

이제, **Lifepius**와 함께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금융을 하는 이유, Lifepius

가족을 지키는 모든 방법 **전가족종합보험**

당신의 **봄**

엄마가 RC가 되고부터,
**아침밥상에
봄이
왔어요**

우리 집 아침 풍경이 달라졌어요
따끈한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아빠 쿫노래를 불러요

아침 일곱시, 모두가 바쁘는데
모두가 즐거워요
웃음 꽃이 피어요
아침 밥상 위에 봄이 온 것 같아요

**삼성화재 RC와 함께
인생의 봄을 만드세요!**



삼성화재 RC 모집

삼성화재 RC란? 리스크 컨설턴트(Risk Consultant),
고객의 자산과 위험을 관리하는 전문금융인입니다.

서울 강북권 070-7111-3202 | 서울 강남권, 강원권 070-7111-3206
서울 강서권, 인천권 070-7111-3201 | 경기권 070-7111-3207
충북, 충남권 070-7111-3208 | 전북, 전남, 제주권 070-7111-3204
부산, 경남권 070-7111-3203 | 대구, 경북, 울산권 070-7111-3205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삼성 의료기 '규제 가시' 뺏고 날개 다나

고령화·첨단의료 시대 맞아
정부, 원격의료 규제완화 검토
'삼성 헬스' 앱 국내 이용 못해
메디슨 등 시너지 효과 기대

정부의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에 따라 삼성 의료기기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은 삼성전자의 의료기기사업부와 삼성메디슨 양측으로 의료기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14일 의료기기 산업계 및 청와대, 정부, 국회 등을 종합하면 정부는 의료기기 분야를 포함한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체외진단기기 허용 간소화를 필두로, 의료기기 산업육성, 원격의료 허용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국내 다양한 기업들이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연 돋보이는 기업은 삼성이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GE, 지멘스, 필립스 등 해외 기업들이 높은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 해외 기업의 틈바구니에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사업을 유지해나가고 있으며, 삼성이 그나마 공격적인 마케팅과 투자로 두각을

삼성메디슨 주요 연구개발 실적 ※출처: 삼성메디슨

- 2001~2003년 'Accuvix XQ'(멀티 플랫폼형 초음파 진단기기)
- 2008~2010년 'MySono U5'(초소형 컴팩트 초음파 기기)
- 2010~2013년 'PT60A'(현장 진단용 초음파 의료기기)
- 2011~2013년 'WS80A'(상부인과용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 2011~2014년 'RS80A'(방사선과용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 2015~2017년 'HS40'(엔트리급 범용 초음파 진단기기)



나타내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언급한 원격의료는 고령화 및 첨단의료 시대를 맞아 줄기차게 규제 완화 목소리가 이어졌던 분야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인도 등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된 '삼성 헬스' 앱을 이용해 의사와 화상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나 피검사 결과를 스마트폰에 저장했다가 원격의료로 해주는 의사에게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원격의료 규제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기 산업 규제가 완화되면 삼성전자의 자회사 삼성

메디슨에도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는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진단기기 사업을, 삼성메디슨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최근 들어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전통주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장은 2015년 12월부터 삼성메디슨의 대표도 겸임하고 있다. 전 사장 체제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은 조그씩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서울 대치동에 있던 삼성메디슨 사옥을 매각하고 판교 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와 공동 연구개발(R&D)이 활발해졌다. 작년에는 두 회사가 공동으로 프

리미엄 초음파 기기를 출시하기도 했다. 실적도 성장세다. 삼성메디슨은 지난해 3년 만에 처음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3026억 원, 영업이익은 65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매출은 2016년보다 16% 성장했고 손익은 311억 원가량 개선됐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기 사업은 삼성의 180조 원 투자 계획 발표 이후 바이오의약품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지만, 삼성이 관심을 가지고 길게 보는 분야다"라며 "삼성이 강조하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사업도 가능해지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 분야에서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일회용컵 안돼요' 플라스틱 규제 '골머리'에... '친환경 썩는 플라스틱' 각광

땅에 매립해도 완전 분해
롯데케미칼, PLA 컴파운드 양산
SK케미칼도 사업화 준비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카페와 소비자 간 혼선, 아라바이트 생의 업무 가중 등 잡음이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 업계는 일회용 컵의 편리성과 환경을 동시에 생각한 '친환경 플라스틱'에 주목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생산국이며, 연간 2197만 8000톤의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이 중 1만 1629톤을 내수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폐기물로 발생한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매립, 소각, 재활용)로 구분된다. 그러나 매립과 소각 모두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플라스틱을 매립할 경우 분해가 불가능하여 토양 내에서 그대로 잔류하게 되고, 소각할 경우 그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재활용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석유화학업계에선 매립해도 완전히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주목하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흙이나 물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는 '썩는' 플라스틱을 가리킨다. 특히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PLA가 주목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3D 프린터·유아용 식기 소재로 사용되는 PLA 컴파운드 양산에 성공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옥수수·사탕수수 등 식물자원을 기반으로 한 원료로, 친환경적 특성을 인정받아 유해물질 규제 지침(RoHS) 인증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SK케미칼도 PLA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SK케미칼도 지난해 3D 프린터용 소재로 PLA를 활용했다. SK케미칼의 주력 제품인 '에코젠'도 옥수수, 밀과 같은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를 기반으로 만든 합성폴리에스터로 친환경성, 내열성이 높아 산업재와 가전 등에 적용되고 있다. SK케미칼은 PLA를 원료로 한 친환경 플라스틱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PLA 사업화를 준비 중이다. 이 밖에 필름제조업체인 SK도 PL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은 아직 제한적으로, 업체별로 아직 기술개발 중이거나 납품요청이 들어오면 수급하는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플라스틱 규제 등 환경친화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시장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삼성 미래기술 육성사업 대표적 연구 성과

선정연도	내용
원동기 연구	2014년 - 포스텍 화학과 박문정 교수 연구 - 현재까지 학계에서 시도된 바 없는 선행운동을 하는 전기장 구동 고분자 원동기 연구 - 연구 실현 시, 웨어러블 로봇이나 장애인용을 위한 인공근육으로 활용될 수 있음
항암 표적치료 연구	2014년 - 서울대 생명과학부 윤태영 교수 연구 - 연구 성공 시 제1차 표적치료제 개발에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음
마찰 발전기 개발	2014년 - UNIST 신소재공학부 백정민 교수 연구 - 번개의 원리를 이용한 마찰 발전기 개발 - 연구 실현되면 배터리 없이 웨어러블 기기를 구동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딥러닝	2016년 - 포스텍 IT융합학과 김재준 교수 연구 - 기존 딥러닝 서버에 구축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의해 이뤄진, 연구는 각각의 디바이스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딥러닝 전용 칩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

삼성 미래기술 육성사업 투자액
(단위: 억 원)

2013~2017년: 5389
2018~2022년: 9600

선정 연구과제 현황
(단위: 건, 2013년부터 5년간 기준)

기초과학	ICT	소재기술	총
149	147	132	428

삼성 미래기술 육성사업 특허 출원
(단위: 건, 국내 485건 해외 75건)

연도	국내	해외
2014년	34	4
2015년	79	7
2016년	96	9
2017년	187	30
2018년 7월	89	25



장재수 삼성 미래기술육성센터장이 13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지실 브리핑 룸에서 삼성 미래기술육성사업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계열사서 누락된 처남 회사...한진 '고의성 없다' '디테일 경영자' 조양호의 착오? (한진그룹 회장)

공정위, 검찰 고발키로

"숨길 이유가 없다. 고의성도 전혀 없는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

한진그룹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인척 회사를 계열사 현황에서 장기간 누락해온 것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날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직책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누락된 회사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향공화물 등으로 모두 조 회장의 처남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들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 지분의 60% 이상을 조 회장 처남 및 친족이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에 따라 한진 계열사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회사들은 대한항공, 진에어 등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 관계를 장기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진 측은 "친척 6층, 인척 4층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 다면서도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의 이같은 해명에도 조 회장이 무려 15년 동안 처남이 사실상 소유한 회사를 빼뜨려 신고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디테일에 강한 경영자'로 통하는 조 회장은 평소 꼼꼼하고 세심한 경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실제 공정위 조사에서도 조 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회사에도 200만 원 이상의 관촉비를 지출할 경우 본인의 결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성영 기자 moon@

장애인용 인공근육... 삼성 씨뿌린 '미래기술' 빛본다

포스텍 화학과 박문정 교수는 삼성 미래기술육성사업 지원 하에 선행운동을 하는 전기장 구동 고분자 액추에이터(원동기)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학계에서 시도된 적이 없었다. 박 교수의 연구가 실현되면 웨어러블 로봇이나 장애인용을 위한 인공 근육으로 활용될 수 있다.

2013년부터 추진된 삼성 미래기술육성사업은 기존의 연구문화 패러다임과 다른 것을 추구한다. 익명을 밝힌 한 대학교수는 "우리나라는 연구지원 선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공정성만 신경 쓴 나머지, 전문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10년간 1조5000억 연구 지원
2장짜리 연구제안서로 심사
실패 책임 안 묻고 지식자산 활용
4차 산업혁명 기술 지원도 확대

반면 10년 동안 1조5000억 원이 투자되는 미래기술육성사업에 선정되는 연구의 기준은 "새로운 것이나, 세계의 흐름을 주도할만한 것인가"이다.

5년이 지난 후 사업은 인공근육처럼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다. UNIST 신소재공학부 백정민 교수(2014년 선정)는 번개의 원리를 이용한 마찰 발전기 개발

원리를 이용한 마찰 발전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 연구가 실현되면 배터리 없이 웨어러블 기기를 구동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기존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공정성도 고려한다. 심사위원들은 연구자의 이름과 소속이 가려진 2장짜리 연구제안서를 토대로 심사한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자에게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고, 실패원을 지식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영 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은 "이런 조건 때문에 사업에 참

여하는 교수 중 55%가 43세 미만이다"고 말했다.

남은 5년 동안 미래기술육성사업은 단순히 연구지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장재수 미래기술육성센터 전무는 "연구와 관련해 스타트업 창업하고자 하는 연구원들의 수요가 높다면,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기술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장 전무 "AI나 IoT 등에 대한 수요가 많고 시급한 상황인 만큼, 내년부터 테마를 확대해 (연구과제를) 선정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LG 스타일러도 AI '씽큐' 품는다

LG전자가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한 의류관리기 'LG 스타일러(사진)'를 새롭게 선보인다.

LG전자는 이달 31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하는 'IFA 2018' 전시회에서 'LG 스타일러 씽큐'를 처음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을 전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가전에서는 웨어러블 씽큐 에어컨, 트롬 씽큐 드럼세

탁기에 이어 스타일러에도 인공지능 플랫폼을 탑재했다. LG전자의 글로벌 인공지능 브랜드 'LG 씽큐'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제품과 서비스를 아우른다.

'LG 스타일러 씽큐'는 손으로 조작할 필요 없이 음성만으로 손쉽게 전원을



獨 'IFA 전시회'서 31일 첫 공개
음성으로 전원·의류관리 코스 설정

켜고 끄거나 의류관리 코스를 설정할 수 있다. 제품의 동작 상태와 진단 결과를 음성으로 알려주기도 한다.

사용자가 "하이 LG, 표준 코스 선택해"라고 명령하면 스타일러가 "표준 코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코스는 약 39분 걸립니다"고 대답한다. "스포츠웨어는 어떤 코스를 써야 해?"라고 물으면 "스포츠웨어 코스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할까요?"라고 알려준다. "무슨 문제 있

니?"라고 물으면 "현재 감지된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답해준다.

LG전자는 최대 6월까지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대용량 '스타일러 플러스', 전면을 전신 거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러 미러' 등 다양한 고객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제품을 출시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 리빙어플라이언스사업부장 부사장은 "고객들이 의류관리기의 대명사가 된 'LG 스타일러'를 더욱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등 차별화된 제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LS전선, 전통시장서 전기안전점검 재능기부

상인들에 케이블 안전교육도

LS전선이 안양과 군포 등 사업장 인근 지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 재능기부활동을 벌이고 있다.

LS전선은 지난해 9월 전국 전통시장의 점포들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전통시장은 전기 설비가 노후되고, 인화성이 높은 물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점포가 밀집돼 있어 화재 발생시 빠른 시간에 확산된다.

특히 화재 원인의 절반이 누전, 접촉 및 절연 불량, 과부하, 과전류, 케이블 손상 등으로 발생하는 합선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사전 점검에 의한 예방이 중요하다.

LS전선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작년 추석을 앞두고 사업장이 위치한 구미 중앙시장과 강원도 동해 북평시장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광주 양동시장, 11월 안양 명학시장, 12월부터 2018년 2월 군포 산본시장과 역전시장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올



LS전선 직원이 전통시장에서 전기안전점검 재능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LS전선

해 3월-5월은 부산 봉래시장과 청학시장, 6월은 대전 송강시장을 방문했다.

LS전선은 케이블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기기를 활용, 개별 점포들을 방문해 케이블의 절연 성능과 피복 상태, 누전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상인들에게는 케이블 오남용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명호현 LS전선 대표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기부활동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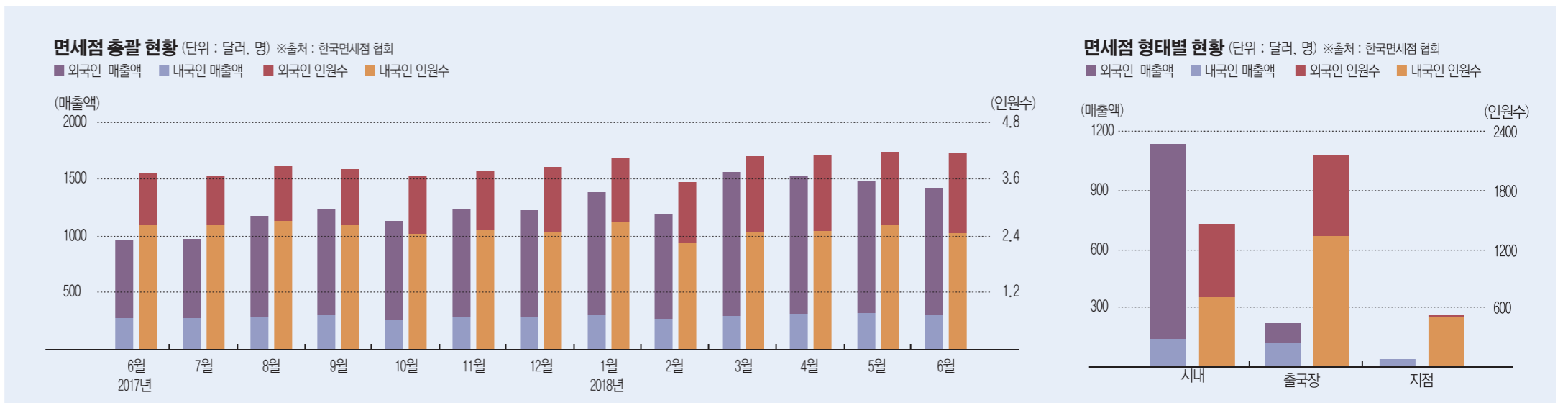
“해외 소비 국내로 돌려야” vs “출국장 면세점 매출 감소”

급물살 탄 입국장 면세점 공방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면세점 시장 판도 변화가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해 관계가 걸린 업계와 정부 부처의 반대로 반년이 무산됐던 입국장 면세점 설치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내수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데 비해 해외 소비만 늘자 입국장 면세점을 통해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어서다. 작년 4분기 국내 거주자의 해외 소비 지출액은 8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나 증가했다.

실제로 아시아지역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등의 국제공항은 잇따라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2월 공항과 항만에 입국장 면세점 19개소를 신설하는 것을 승인하고 베이징 공항 등 4곳에 입국장 면세점을 열었다. 일본도 지난 4월에 입국장 면세점 허용이 담긴 세계 개편안을 적용해 올 9월 나리타 공항에 문을 열 예정이다. 현재 입국장 면세점 설치 운영 국가는 73개국, 137개 공항이며 그 중 아시아는 29개국, 58개 공항에 달한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국민의 지속적인 설치



요구와 해외 추세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와 기존 업계의 반발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관련 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중견·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달라”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SM 면세점을 비롯한 중소·중견 면세점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생존위기에 몰린 중소중견 면세점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로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대기업 면세점들은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업기회 확대나 소비자 편의 등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입국장 면세점

일본·중국 등 입국장 면세점 확대 정부, 이용객 편의 도모 차원 도입 검토

대기업, ‘제로섬 게임’ 우려 반발 항공사도 기내 면세점 매출 감소 불가피 공항 인도장 혼잡 등 난제도 산적

인천공항공사, 개항 초부터 도입 준비 중소·중견 사업자 선정 계획까지 세워

설립이 출국장 면세점 매출 감소를 불러오는 제로섬 게임일 수 있고 △중견중소기업의 면세점 운영능력이 높지 않아 고객 유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부담도 크다는 등의 이유를 꼽는다. 대기업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은 유통 채널 파이를 나눠먹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보다는 입국장 인도장(구매한 면세물품을 찾아가는 곳)을 만들거나 현재 600달러인 1인당 구매액 증액이 더 효율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서면 기내 면세점 매출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는 대형 항공사들도 불만한 기색이다. 기내면세점 매출 규모는 연간 3300억 원 규모이지만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서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세청도 해외반출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해 준 것인데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면 ‘소비자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부정적이었다. 이에 비해 개항 초기부터 부지를 비워 놓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 추진해온 인천공항공사도 화장품,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는 입국장 면세점을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에게 맡긴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지난 설 연휴 발생한 ‘면세품 인도장 대란’ 같은 입국장 인도장의 혼잡 문제, 이해 관계자와의 이견 조율 등 선결해야 할 난제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lee@

삼성전자 ‘갤럭시노트9’ 사전예약 돌입 부품사, 실적 개선 ‘두근두근’

스마트폰 교체주기 증가 등 성장 둔화 하반기 판매 ‘낙수효과’ 기대감 커져



사진제공 삼성전자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받아든 중견·중소 부품사들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9’ 출시 및 판매 개시로 실적 회복을 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모델인 갤럭시노트9와 함께 갤럭시워치 등을 공개했다. 삼성전자와 이동 3사는 이달 20일까지 갤럭시노트9의 사전 예약판매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전자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들 사이에서 낙수효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노펙스는 10월 지난해 동기 실적에 다소 못 미치는 상반기 실적을 공시했다. 시노펙스는 올 상반기 매출액 805억 원, 영업이익 57억 원, 당기순이익 89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6% 줄었으며, 영업이익 감소 폭은 더 컸다.

시노펙스 측은 매출 비중이 높은 스마트폰 부품의 FPCB(연성인쇄회로기판) 사업부문 실적에서 성장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교체주기가 늘어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상황과 함께 고객사의 전반적인 판매 부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이 회사는 갤럭시노트9에 LED커버, 볼륨키, 카메라윈도우 등을 납품하고 있어 판매 증가에 따른 하반기 실적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하락한 파트론과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인터플렉스를 비롯해 아이엠, 옵트론텍 등의 기업이 갤럭시노트9 부품 공급 확대를 실적 개선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파트론은 전방카메라를 비롯해 휴대인식카메라, 안테나 등 다수의 부품을 갤럭시노트9에 공급하고 있다. 인터플렉스는 FPCB를 납품하고, 아이엠과 옵트론텍은 자동초점(AF)과 손떨림 방지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카메라 광학부품을 공급한다.

시노펙스 관계자는 “상반기 폭스콘의 밴더 등 록을 진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추가 고객사 확보 및 물량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고부가 FPCB 생산능력 확보 및 안정화와 함께 FPCB 이외의 전자부품 생산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전체 매출 규모를 시장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야놀자, 롯데월드·캐리비안베이 이용권 특가 판매

야놀자가 롯데월드와 캐리비안베이 이용권 특가 이벤트를 19일까지 실시한다. 야놀자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복합쇼핑몰 등 실내 문화공간이나 워터파크를 찾는 이들이 급증함에 따라 고객들이 국내 최대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이용권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14일 설명했다.

야놀자는 이벤트 기간 동안 롯데월드 이용권을 온라인 단독 특가인 중일 2만8000원, 야간 2만7000원에 제공한다. 야간권은 오후 4시부터 입장할 수 있다.

캐리비안베이 티켓도 특가로 판매한다. 이용 시즌이나 시설, 시간대에 따른 6가지 선택사항이 있으며 예버랜드 이용 포함 패키지도 마련했다. 캐리비안베이 단독 이용 시 중일권 가격은 골드시즌(8월 8일-26일) 4만3500원, 하이시즌(8월 27일-9월 9일) 2만9600원, 기간 한정(8월 16일-26일) 3만8900원이다.

야놀자는 레저/티켓 예약 서비스 관련 △안심환불 제 △최저가보상제 △안심상품제를 운영하고 있다. 야놀자에서 예약한 티켓은 미사용 시 결제수단으로 100% 자동 환불되며, 일정이나 인원 변경 시에는 부



사진제공 야놀자

분 사용 및 취소할 수 있다. 타 예약 플랫폼보다 비싼 상품이 있을 시에는 차액의 2배를 보상한다.

조세원 야놀자 마케팅총괄상무는 “레저/티켓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오선월드부터 롯데월드, 캐리비안 베이까지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내 3대 테마파크 티켓을 연이어 특가 상품으로 마련했다”며 “여름철 극성수기에도 야놀자의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이 부담 없이 바캉스를 즐길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자민 기자 aaaa3469@

Sulwhasoo

雪花秀

Sulwhasoo MEN

INNER CHARGING SERUM

본윤에센스

부드러움 속에 흐르는 강인함, 독보적인 격을 지니다

설화수 맨 본윤에센스

나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남자의 피부는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설화수의 안티에이징 정수가 담긴 정양단이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 주름, 탄력, 칙칙함을 한번에 케어해주는 설화수 맨 본윤에센스. 시간 앞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남자의 피부를 완성해줍니다.

·설화수 플러그인스도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플러그인스도어: 02-541-9270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료 유급부담)

'가상현실'에 빠진 백화점



백화점업계가 VR(가상현실) 체험관을 잇달아 도입하며 젊은 고객 잡기에 한창이다. 유통업계의 무게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고객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는 등 업계가 정체기에 빠진 가운데 젊은 세대에 익숙한 콘텐츠를 마련함으로써 신규 구매 수요의 유입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최근 건대점 10층에 VR 체험관인 '롯데 몬스터 VR' 실내 테마파크를 오픈했다. 영업면적 1400㎡의 '롯데 몬스터VR'는 60개 이상의 다양한 VR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롯데백화점은 앞서 2017년 9월 엘큐브 홍대점에 상권에 적합한 콘텐츠 도입을 목적으로 VR 체험관을 오픈한 바 있다. 엘큐브 홍대점 3층에 있는 VR 체험관은 148㎡ 규모로 다양한 VR 체험 기구를 설치해 주말 대기 시간이 1시간에 육박하는 등 10~20대 젊은 세대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도입 3개월 만에 고객이 300% 이상 증가하는 등 고객 수요도 확인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현대IT&E에 기존 IT 사업부 외에 VR 전담 사업부를 만들었다. VR 사업부는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현대아울렛과 유동 인구가 많은 전국 주요 거점 등에 대규모 VR 테마파크를 조성, 운영을 맡는다. 현재 국내 VR 중소기업 및 해외 VR 전문업체들과 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10월께 VR 테마파크 1호점을 오픈할 계획이며 향후 2년 내 10개 이상의 VR 테마파크를



신세계 센텀시티 4층에 마련된 VR 체험관에서 어린이들이 가상현실 게임을 하고 있다.

롯데백, 건대점 VR체험관 오픈 현대도 2년내 10여곳 테마파크 신세계, 센텀시티 '버추얼...' 방학시즌 매출 전월대비 60% ↑

고객 고령화로 성장 정체 위기 체험 콘텐츠 확대해 반전 기대 구매력 높은 젊은층 유인 효과 체류 시간 늘어 영업도 긍정적



롯데백화점 건대점 '롯데몬스터VR' 전경.

연다는 구상이다.

신세계는 부산 센텀시티 매장 4층에 VR 체험존 '버추얼 아일랜드'를 갖추고 있다. 남녀노소, 가족 단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에 손님이 몰리면서 여름 방학 시즌에는 전월 대비 매출이 60% 늘었다.

백화점업계가 이처럼 VR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고객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매출 정체 때문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낸 '2017년 유통업체연감'에 따르면 백화점 고객 중 50대 이상 비중이 2015년 30.3%에서 2016년 35.5%로 5.2%포인트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온라인, 모바일 등 디지털 채널로의 젊은 층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50대 이상 고객 매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백화점 3사 매출 증가율은 1.6%에 그쳤다. 작년 상반기 역시 0.9%로 저조하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따른 부진이 원인이다. 오픈 서베이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 제품을 살펴보고 모바일로 구매하는 '쇼루밍'이나 매장 내에서 모바일 탐색을 하는 등 쇼핑시 온·오프라인을 병행 활용하는 비중이 83%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VR을 비롯한 체험형 콘텐츠 도입을 통해 2030 젊은 세대 및 가족 단위 고객들의 신규 유입은 물론 백화점 체류 시간을 늘림으로써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CJ ENM 오쇼핑의 '2018 KCON LA' 씨이엔 부스.

단독 온라인몰 '셀럽샵닷컴' 오픈 빅피쳐 그리는 CJ ENM '셀럽샵' 글로벌 패션 편집숍 힘찬 날갯짓

CJ ENM 오쇼핑부문의 패션 편집숍 '셀럽샵(CelebShop)'이 글로벌 온라인몰인 '셀럽샵닷컴'을 정식 오픈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TV 홈쇼핑을 중심으로 한 판매 전략을 넘어 단독 온라인몰을 통해 글로벌 패션 편집숍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홍콩, 태국 등 전 세계 89개국에서 셀럽샵닷컴의 상품 주문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ONLYONE)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셀럽샵은 2009년 오쇼핑 부문이 업계 처음으로 선보인

온라인 패션 편집숍으로, 자신만의 색채가 분명한 국내 디자이너, 셀럽들과의 협업 상품들을 주로 선보여왔다. 2016년 이후에는 '셀럽샵 에디션(CelebShop edition)'과 '씨이엔(Ce&I)'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출시했다. 셀럽샵닷컴에는 '셀럽샵 에디션'과 '씨이엔' 브랜드 중심으로 현재 110여 개 상품이 입점돼 있다. 올 F/W 신상품을 론칭하는 8월 말부터 디자이너 브랜드를 추가로 발굴해 총 300여 개 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셀럽샵의 '씨이엔'은 올여름 시즌 델로 기용해 워너원 티셔츠를 선보이며 콘텐츠와 상품의 결합을 통한 시

너지를 경험했다. 앞으로도 셀럽샵은 워너원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활발히 시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씨이엔의 워너원 티셔츠는 최근까지 셀럽샵닷컴의 메인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지난날 CJ ENM 오쇼핑부문은 말레이시아 CJ WOWSHOP(와우샵)에서 씨이엔의 워너원 티셔츠 세트를

판매해 목표 대비 20%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셀럽샵은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2018KCON LA'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글로벌 고객들에게 셀럽샵닷컴을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 KCON LA가 진행된 서울 동안 총 2만1000명의 고객이 셀럽샵 부스를 방문했다. 부스를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씨이엔의 워너원 티셔츠를 판매하며 셀럽샵닷컴 사이트를 홍보했다.

셀럽샵닷컴 회원 가입을 한 고객에게는 현장에 준비된 VR(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게임 이벤트에 참여할 기회와 셀럽샵닷컴의 10% 할인쿠폰을 제공했다. 현장에서 셀럽샵닷컴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은 당초 목표 대비 약 34% 초과한 2675명에 달해 셀럽샵과 워너원에 대한 글로벌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lee@



홈쇼핑 중심 판매에서 벗어나 89개국 주문 가능 시스템 구축 워너원 모델 티셔츠 제작 '대박'

급식·식자재 업계도 '최저임금 인상' 몸살

CJ프레시웨이 2분기 당기순이익 절반 줄어, 신세계푸드도 전년비 43% 급감

'주52시간' 회식 감소도 원인

급식·식자재 업계에도 최저임금 인상의 불뚱이 튀면서 2분기 실적이 악화했다. 여기에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외식업 경기 부진까지 더해져 영업익과 당기순이익이 떨어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의 2분기 영업이익은 1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억 원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52.5% 줄어든 33억 원을 기록했다. CJ프레시웨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성장했으나 외식업 경기 둔화 등으로 외형 성

장이 미흡해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저녁 회식 문화가 줄어들자 국내 외식업계로도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CJ프레시웨이도 식자재 부문 중 외식·급식 유통에서만 전년 동기 대비 8.4% 매출이 줄어들었다. 2분기 인건비가 전년 대비 41억 원이 늘면서 판매관리비가 3.5% 증가한 것 역시 영업이익 하락 원인 중 하나였다.

신세계푸드도 상황은 비슷했다. 신세계푸드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2% 감소한 69억 원, 당기순이익은

43.2% 감소한 37억 원을 기록했다. 신세계푸드 측은 "식음부문 매출 감소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무비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수입원율 시세 하락 등으로 인한 이익 감소도 더해져 실적이 부진했다.

반면 현대그린푸드의 경우 주요 식자재 유통사 중 유일하게 실적이 올랐다. 2분기 현대그린푸드의 영업이익은 4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8% 올랐고 당기순이익 역시 448억 원으로 28.6% 증가했다. 지난해 주요 식자재 유통사 중 홀로 매출 감소를 기록했던 현대그린푸드가 2분기에 돌보

인 것은 지난해 12월 연결 자회사로 편입

된 현대리바트의 실적이 포함된 효과 덕이다. 2분기 현대리바트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1% 증가한 171억 원이다.

지난해 현대리바트를 편입한 현대그린푸드는 올해 현대백화점그룹이 순환 출자를 해소함에 따라 지배구조도 개선됐다. 현대홈쇼핑에 대한 자본율도 25%로 낮아져 지배력 역시 강화됐다. 여기에 그룹 내 중공업 등 관계사의 실적 부진에 따른 단체급 감소의 영향도 개선됐다.

편의점과 함께 1분기부터 실적 부진이 예상됐던 식자재업계는 평창 동계올림픽 케이터링 서비스 효과 등에 힘입어 계약 수주가 늘어나면서 1분기 부진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인건비 인상과 외식업 둔화가 더해지면서 2분기 실적이 부진한 데 이어 3분기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대명 기자 koda0@

www.childfund.or.kr

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꿈을 찾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볼 때입니다

후원문의 1588-1940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놀이 환경 개선과 놀 권리 증진 사업을 통해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보게 합니다.

7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988년 설립



360° 카메라

대한민국의 생명을 살리는 일 KT가 스카이십으로 함께합니다

KT는 5G 기술로 중증외상센터, 정부와 함께
국가 재난안전망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오늘의 기술

Hi Five! 5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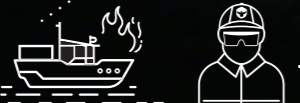


대한민국 생명을 지키는
KT 5G 스카이십



■ 유사시 재난지역의 통신망을 복구하는 이동식 기지국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조난자 수색 및
해상 구조활동 지원



■ 재난현장을 360도 카메라 및
AR글래스를 통해
비상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



PEOPLE. TECHNOLOGY.



경영권 프리미엄의 '역설'

딜인사이드

지난해 SK증권이 공개매각 절차를 개시했을 때 지분 10.04%는 608억 원에 매각됐다. 금융·증권사의 매각가가 주가순자산비율(PER)로 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당시 해당 지분의 가치는 415억 원에 불과했지만 200억 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붙었다. 당시 매각을 주관한 삼정회계법인의 관

매각지분 적을수록 가치 높아 국내시장에서만 있는 부작용 전문가 "거래가격 적정성 의심"

계자는 "한국 시장에서 인수·합병(M&A)을 할 때는 지분이 적을수록 값을 크게 쳐주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싼 가격(적은 지분)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가치를 얻어 준다는 의미다.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50% 이상 대량 지분일수록 '경영권 프리미엄'이 비쌀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르다. 이러한 현상이 소수주주권이 약한 한국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일종의 '부작용'이라는 전문

가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의 '기업 인수 과정의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의 총 47개 기업에서 최대 주주 변경이 발생했다. 지배주주의 지분 이전을 통해 최대주주가 변경된 매각 사례다. 해당 거래에서 이동한 지분들의 평균값은 28.9%에 불과했다. 가장 낮게는 5.5% 지분 이동만으로 최대주주가 바뀐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47건의 거래 중 31건(66%)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됐다.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 규모도 시장 가격(거래 전 증가) 대비 50% 수준으로 높았다.

특히 인수 지분율이 높은(50% 이상) 거래보다 낮은 거래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 많이 지급됐다. 거래 1일 전 증가 기준으로는 20% 미만 지분거래에 지급된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장 컸다. 임자영 CGS 연구원은 "지분율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어 더 높은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현재 상황은 적절한 자원 배분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거래 가격의 적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gamja@

골드만삭스, 국내기업 '美복제약 시장' 부정적 전망에... 제약·바이오 대형株 3인방 '회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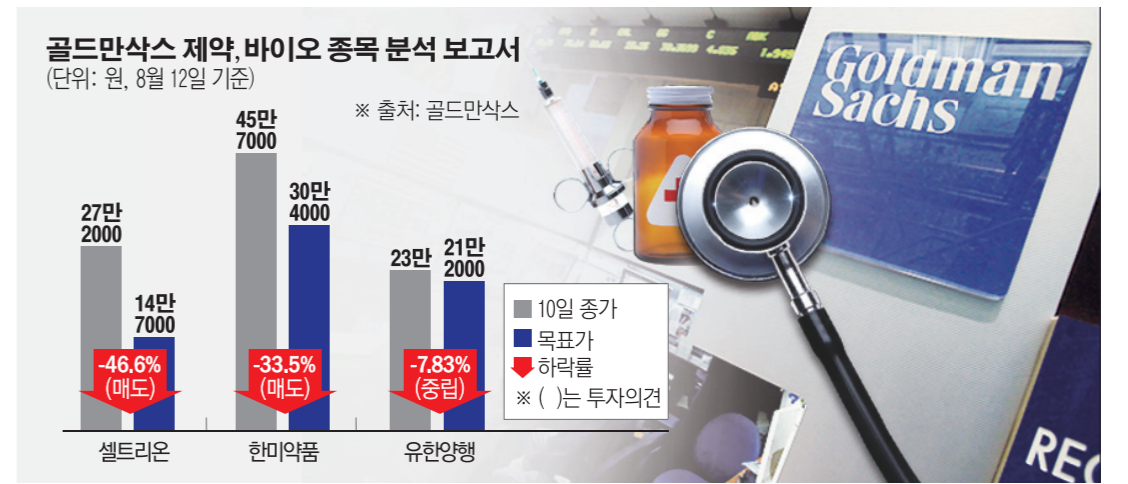
셀트리온, 26만500원 마감 '4.23% ↓' 신규 목표가 14만7000원으로 '반토막' 한미약품 7.44%·유한양행 2.39% 하락

"신약 개발 암·당뇨 등 과밀도 시장 몰려 후발주자 R&D 파이프라인 과대 평가"

제약·바이오 대형주 3인방에 대해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과열 진단을 내렸다. 다만 이전에도 외국계 증권사들이 의구심을 보였던 바이오시밀러(복제약)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제품 제조사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해 타격이 더 컸다.

13일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셀트리온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만1500원(4.23%) 내린 26만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셀트리온은 장중 최저 25만9000원까지 출렁이기도 했다. 같은 시각 한미약품은 전일 대비 7.44% 내린 42만3000원에, 유한양행은 2.39% 내린 22만4500원으로 마감했다.

주요 의약품 업종 전반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 시각 코스피 의약품 업종 지수는 전장보다 3.90% 내렸다. 국내 대형사 중에선 JW생명과학(-5.88%), 한울바이오파마(-4.64%), 삼성바이오로직스(-



3.88%), 대웅제약(-2.63%), 녹십자(-1.90%), 일성신약(-1.44%) 등의 하락이 컸다.

골드만삭스는 12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셀트리온에 '매도' 의견과 목표가 14만7000원을 신규 제시했다. 이는 전일 증가(27만2000원) 대비 46.6% 하향 조정돼 반토막 수준이다. 김상수 골드만삭스 연구원은 "미국은 소비자들의 지급 수요가 낮고, 규제 지원이 적으며, 파트너사의 수동적인 마케팅 활동 등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특히 52억 달러 규모의 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내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지난해 10억 달러에서 2025년 14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미국의 구조적 상황과 유럽시장 내 가격 침체, 중국과 인도 제약사 유입으로 인한 경쟁 과열 등 불안 요인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점은 골드만삭스가 바이오시밀러 외에도 국내 오리지널 제약 파이프라인 보유 기업들까지 우려를 표명한 대목이다. 셀트리온의 경우 모건스탠리(2017년 11

월), 노무라증권(2018년 1월) 등 외국계 증권사들로부터 주가가 과열됐다고 매도 분석을 받은 전례가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는 제약·바이오 업종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재평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판단했다. 현재 업종 주가수익비율(P/E)은 50배 수준으로 2015년 이후 194% 치솟았다.

이와 함께 국내 대표 제약주인 한미약품에 '매도' 의견과 함께 목표주가로 기존 주가 대비 33% 낮아진 30만4000원을 제시했다. 유한양행은 비교적 양호한 '중립' 의견을 받았지만 증가 대비 8% 하향 조정된 21만2000원을 목표가로 부여받았다.

김상수 연구원은 "신약 성공의 최적 지점이 어디 있는지 분석했지만, 동시에 한국 제약사들의 신약 포트폴리오 대부분이 과밀도 시장인 당뇨나 암과 같은 후발 진입자 포지션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짚었다. 이어 "후발주자 회사 대부분의 R&D 파이프라인 자산이 과도하게 평가된 경향이 짙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 이하의 임상 결과와 상업적 성공 여부가 밸류에이션을 (하향) 정상화시킬 것이란 것도 알아냈다"고 덧붙였다.

차민영 기자 blooming@·윤기쁨 기자 modest12@

기업 주식 담당자

주담과 Q&A / 동운아나텍

스마트폰 '트리플카메라 시장' 확대 호재

고사양 자동초점 장치 제품 개발 완료 삼성·화웨이 등 시장영역 확장 청신호

동운아나텍이 주력 제품 AF IC에 대해 트리플카메라와 OIS 대체시장 형성 등으로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 주요 사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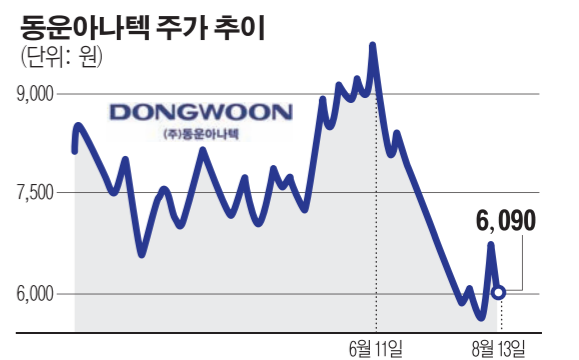
"햅틱스 반도체 기업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의 자동 초점을 잡아주는 AF Driver IC가 주력 제품이다. 주요 매출처로는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등을 포함해 중국의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등이다. 주력 제품인 AF Driver IC의 경우, 글로벌 시장점유율 50%를 웃돌고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점유율 80%를 상회한다."

- 신사업 현황은

"트리플카메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트리플카메라에서 중요한 요소는 5배 줌 기능이다. 이를 위해선 고사양 AF IC가 필요한데 이미 제품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OIS 기능을 클로즈드를 칩 2개로 대체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 향후 중저가 폰에도 클로즈드 AF IC 적용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 중국 시장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화웨이가 애플을 제치고 세계 시장점유율 2위로 올라섰다. 화웨이는 이미 트리플카메라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에는 전 라인업에 듀얼카메라는 기본 스펙으로 장착하고 중저가 모델까지 트리플카메라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 이



의 중국 메이저 업체들도 트리플카메라, 포스터치 도입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기존 시장점유율을 이용해 납품을 늘릴 계획이다."

- 실적 전망은

"내년에는 트리플카메라, 듀얼카메라가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에 장착돼 주력 제품인 AF IC의 시장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중국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기반으로 실적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Haptic IC도 실적이 기여할 전망이다. AF에 비해 단가가 훨씬 높고, 스마트폰을 넘어서 기기적으로 자동차, 전장, 게임기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다. 추가 성장을 기대한다."

- 추가 부양책은

"올해 하반기 터어라운드를 시작으로 내년 온기 이익 내 주주 대상 이익 배당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주가 하락은 상반기 국내 전자폰의 판매 부진에 기인한다. 내년 출시될 스마트폰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트리플카메라 시대가 열리면서 성장 포인트도 유호하다고 보고 있다." 이정희 기자 jih@

"터키궤 약세... 증시 조정장세 불가피"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로 추락한 가운데 당분간 조정 장세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4.34포인트(1.50%) 내린 2248.45에 장을 마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외국인인 1723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이날 증시가 크게 출렁인 데에는 터키발 금융위기와 외국계 증권사들의 국내 대형주들의 '매도' 의견이 영향을 끼쳤다.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터키의 리라화가가 20% 넘게 폭락하면서 신흥국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증권가는 당분간 조정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 분석

을 내놓고 있다. 김용겸 케이프투자증권 센터장은 "터키발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외국계 보고서가 반도체와 바이오주의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며 "터키 문제는 미국과 연계돼 있어서 조정 장세가 금방 해결될 것 같진 않다"고 분석했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센터장은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터키와 러시아 등 신흥국가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시장 지수는 이미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센터멘탈(심리)의 측면에서 주가가 더 출렁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윤 센터장은 "모든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주가 가격이 싼 편이기 때문에 펀더멘털(기초체력)에는 이상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퀴터백)

고객행복센터
1599-8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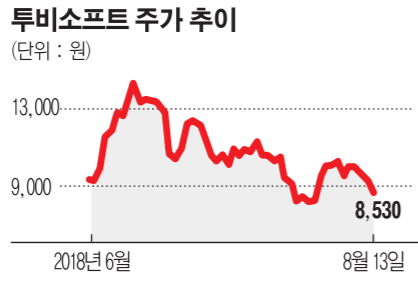
*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중립이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중립이 그러한 설명을 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타트업 매매수수료 (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율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비소프트, 자궁경부암 항암제 韓·美 임상

에이티파머와 협력 '알로페론' 앞세워 아시아 시장 공략

항염·항바이러스 뛰어난
부작용·내성도 거의 없어
러시아 HPV 등 치료제 시판
베트남 교두보로 태국 등 진출



투비소프트가 에이티파머와 알로페론에 대한 국내 및 미국 임상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연구 및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14일 투비소프트와 에이티파머는 "자궁경부암 면역항암제를 국내와 미국 FDA 임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략적 협업 계약을 맺고 바이오 사업을 함께 추진 중인 에이티파머가 러시아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치료제 알로페론을 중심으로 아시아 자궁경부암 시장을 공략한다"고 밝혔다. 알로페론은 곤충의 면역 체계 연구에

기반해 초파리에서 추출한 물질로 항염, 항바이러스 작용이 뛰어나고 대표적 자가면역세포인 NK면역세포(자연살해세포)를 활성화하는 효능이 있다. 부작용과 내성이 거의 없어 임상부나 면역 기능이 약한 환자들도 사용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러시아에서는 HPV, 헤르페스바이러스(HSV), 급성B형간염 치료제로 이미 시판되고 있으며 부작용 사례가 거의 없는 안전한 의약품이다. 특히 에이티파머는 HPV가 주요 원인인자로 알려진 자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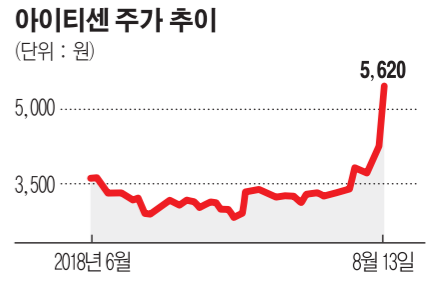
경부암 치료를 타깃으로 아시아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HPV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약 70% 이상의 자궁경부암 환자에게서 발견된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자궁경부암은 여성에게 두 번째로 발생 빈도가 높은 암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27만 명의 여성들이 자궁경부암으로 인해 사망한다. 2015년 기준 글로벌 자궁경부암 진단 및 치료 관련 시장의 규모는 24억 달러(약 2조7000억 원) 규모에 달했다. 신라젠, 동성제약, 프로스테믹스, 이디 등과 함께 바이오 관련주로 꼽히는 투비소프트는 알로페론 관련 러시아 인허가 제도를 인정하는 아시아 주변 국가들을 위주로 빠르게 인허가 신청 및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며 현재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곳은 베트남이라고 전했다.

김대호 에이티파머 회장은 베트남 시장 진출에 대해 "알로페론 기반의 의약품인 '알로퀸알파' 주사제 및 '에이티알파' 연구에 대한 상표권 및 인허가를 접수하여 6개월 이내에 판매허가를 취득하고 cGMP(미국 우수 의약품 생산시설)급의 공장을 보유한 제약회사와 생산을 위한 MOU를 체결할 계획"이라며 "베트남을 교두보로 삼아 향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에이티파머는 그동안 알로페론 특허권과 관련된 법률 분쟁으로 사업 확대 속도가 더디었으나 최근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에이티파머가 알로페론 특허 및 판권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음이 재확인돼 향후 본격적인 아시아 시장 진출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설경진 기자 skj78@

한국금거래소·콤텍시스템 동시 인수 아이티센, 토털 IT 서비스 기업 도약

블록체인 금거래 플랫폼 구축 IPO 추진 3년 내 시총 1조 목표



국내 IT서비스전문기업 아이티센그룹이 금 유통과 주얼리 제품의 제조·판매 사업 국내 점유율 1위 한국금거래소(이하 한국금거래소)와 NI(네트워크통합) 전문기업인 콤텍시스템을 동시에 인수했다. 아이티센은 14일 한국금거래소 지분 67.3%, 콤텍시스템 지분 24.85%를 각각 760억 원, 305억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아이티센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회사 관계자는 "연결기준 연 매출 규모 2조 원, 자산총액 4000억 원을 상회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증권 토털 IT서비스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됐다"면서 "한국금거래소의 금 관련 사업을 융합한 블록체인 금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여 혁신성장형 기업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티센은 한국금거래소, 시큐센, 콤텍정보통신 등 비상장 그룹사들의 기업 공개(IPO)를 지속 추진해 2021년까지 시가총액 1조 원, 자산총액 5000억 원까지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고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IT서비스 사업 확대를 추진해 왔다. 회사 측은 이번 인수에 따라 시장 내 우월적 지위에서 IT사업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수익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진모 아이티센그룹 회장은 "콤텍시스템의 인수로 인해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성장 기반이 확보됐다"면서 "당사가 보유한 4차 산업 IT 요소기술 벨류체인을 산업과 융합하는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국금거래소도 동시에 인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약 3년여에 걸쳐 융합 대상 산업군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면서 "산업군 중 온라인화, 양성화가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금(귀금속) 유통산업이 혁신성장형 융합의 가장 큰 기회이자 적합한 모델이라고 판단했고, 한국금거래소의 김안모 대표와도 이런 융합의 틀 안에서 의기투합했기 때문에 이번 거래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아이티센은 새로 선보이고 운영할 블록체인 기반 한국금거래소 온라인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약 7조 원에 육박하는 장외 금 시장의 음성적인 거래를 양성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한국금거래소 및 아이티센의 실적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남주현 기자 jooh@

휴온스글로벌, '휴톡스주' 임상 1·3상 시험 승인

(눈가주름 개선 제품)

2020년 적응증 확보 목표... 눈꺼풀 경련·사시증에도 사용

휴온스글로벌은 보툴리눔 독신 '휴톡스주(HU-014)'의 눈가주름 개선에 대한 국내 임상 1상과 3상 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 14일 휴온스글로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국내 임상 3상을 종료하기 전 주름 개선 영역에서 휴톡스주의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임상을 승인받았다. 휴온스글로벌은 2020년 눈가주름 개선 적응증 확보를 목표로 올해부터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에 들어간다.

현재 전 세계 보툴리눔 독신 시장은 약 4조 원, 국내 시장은 1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보툴리눔 독신은 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 외에도 눈꺼풀 경련, 사시증, 다한증, 뇌졸중 후 근육강직 등의 치료 목적으로도 널리 사용되면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휴온스글로벌은 미간과 눈가주름 개선 등 미용 영역 적응증을 강화한 후, 치료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응증을 확대해 경쟁력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김완섭 휴온스글로벌 대표는 "현재 미간 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휴톡스주의 임상 3상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내년 국내 출시도 순조로울 것"이라며 "2020년에 눈가주름 개선 적응증까지 획득하면 미용 영역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1965년 설립된 휴온스글로벌은 2016년 5월 인적분할을 실시한 분할존속회사로서 분할 전 사업부문을 제외한 투자사업부문과 보툴리눔독소 제품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툴리눔 독신 2014년 생산공장에 대한 투자 마무리 및 제품 개발이 완료됐고, 2017년 하반기에 임상 3상 돌입해 2019년 상반기에 주름개선용 보툴리눔 독신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중국 노인 인구의 증가로 백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으로 인한 수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과 수술 관여액에 대한 품목허가를 2018년도에 완료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매출 구성은 제삼품매출 98.99%, 기타수익 0.96%, 용역수익 0.05% 등이다.

김우람 기자 hura@

케이피엠테크 투자 아미팜 '지방감소 주사제' 특허 취득

(AYP-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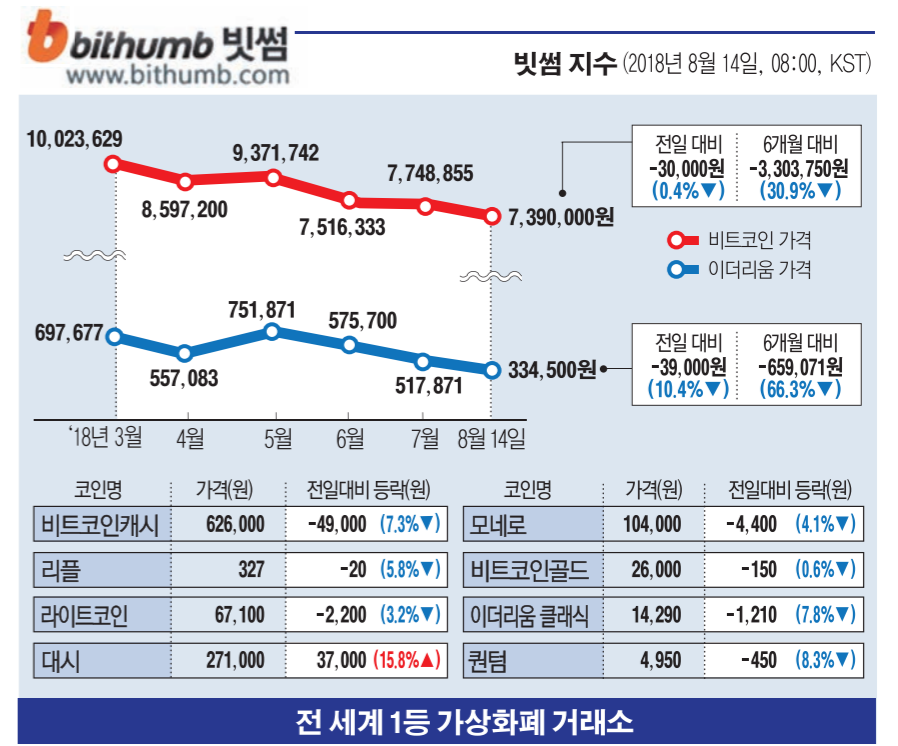
케이피엠테크는 자사가 투자한 지방감소 주사제 전문기업 아미팜이 14일 특허청으로부터 '통증과 부종 및 부작용이 없는 국소지방 감소용 주사제(AYP-101) 조성물 및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국내 임상 2상이 진행 중인 턱밑 지방감소용 주사제 AYP-101은 선택적인 지방세포 사멸(apoptosis) 및 분해(lipolysis) 유도를 통한 지방 감소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 오프라벨(허가 외 처방)로 판매된 포스포티딜콜린(PPC) 주사는 세포 괴사(necrosis)에 의한 작용 기전으로 통증과 부종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나 AYP-101 조성물은 이를 개선했다. 이번 특허로 아미팜은 지방감소용 주사제 관련 세 번째 특허를 취득하게 됐다. 아미팜은 2014년 국내에서 취득한 '데옥시폴리산 나트륨이 없는 PPC 함유

주사제 조성물 및 제조방법' 특허와 2015년 국내 및 미국에서 취득한 'PPC를 포함하는 지방 분해용 조성물 및 제조방법'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아미팜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소지방 감소제 시장에서 AYP-101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특허(PCT)도 출원한 상태"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지방감소용 주사제의 임상시

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아미팜은 현재 국내 4개 대학병원에서 AYP-101의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내 완료할 계획이다. 1971년 3월 설립된 케이피엠테크는 도금화학약품 및 전자용 도금장치의약품 및 도금설비 기계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표면처리약품의 품목은 약 100여 종으로 대부분 PCB, 전자, 통신, 반도체, 일반 장식도금, 자동차 부품용 도금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등 다양한 데이터를 자동수집하여 Cloud Center에서 자동분개, 자동입력, 자동검증 과정을 거쳐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법인세 MRI 검사, 부가가치세 MRI 검사, 상업용기 알람서비스, 4대보험 신고 알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주거도시로만 계획된 위례... 상권 한계, 임대료 절반 '뚝'

빈 상가 넘쳐나는 위례신도시 가보니

오피스 없어 저녁 수요 부족...트램 열려도 나가는 인구 더 많을 것
트랜зит물 동편 프라자형은 성업, 서편 주상복합은 텅텅 '양극화'
곧 계약 만기 떠나려는 임차인 많아...공실 막으려 임대료 낮출 것
8호선 우남역 연장·이마트 계획 호재...조심스런 기대 비치기도

위례신도시 상권의 부진은 오락가락하는 트램 사업의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위례 상권은 도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만성적인 수요 부족을 겪고 있었다. 13일 찾은 위례신도시는 알려진 것처럼 도시 대부분에 공실만이 즐비한 황량한 유휴도시가 아니었다. 다만 위례 안에서도 건물 전체가 비다시피하는 심각한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공실 없이 임차인을 구한 상가로 가득한 건물이 있는 등 '양극화'라고 부를 만한 편차가 눈에 띄는 도시였다. 위례의 핵심 상권은 트램 노선 예정지를 따라 형성된 '트랜зит물'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트랜зит물에서도 동편의 이른바 '프라자형 상가'라고 불리는 상가만으로 구성된 건물들은 성업 중인

반면, 서편의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상가는 거의 전체가 공실에 가까웠다. 동편의 프라자형 상가는 2016년 10월을 전후해 준공됐고, 서편의 주상복합 상가는 2017년 8월을 전후해 준공해 약 1년간의 시차가 난다. 인근의 I공인중개사 사무소의 A 씨는 "병원, 학원, 교회 등이 위치해 수요가 창출되는 프라자형 상가와 차량을 타고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가는 입주민들이 수요를 창출하기 어려운 주상복합 상가와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득 차 보이는 프라자형 상가들에서도 실상은 10월경 2년간의 임차계약이 만료 시기에 빠져나가려는 임차인들이 많다고 A 씨는 설명했다. 이처럼 또 한 번의 공실 위기가 닥쳐오자 초기 350만~400만 원에 형성됐던 트랜зит물 1층 상가 임대료는 현재 230만~250만 원까지 하향



13일 찾은 위례신도시의 한 대형 상가 건물의 공실. 위례신도시에서는 만성적 수요 부족으로 이처럼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가가 곳곳에 있었다. 김정용 기자 cogito@

조정되기도 했다. 트랜зит물 북부에는 위례아이파크와 송파와이즈 더샵아파트의 스트리트형 상가가 위치해 있다. 이곳은 역시 트램노선이 지나는 광장 대로변의 경우 공실이 전혀 없으나, 조금 더 단거리 안쪽으로 들어간 골목 상가에는 곳곳에 공실이 눈에 띄었다. 다만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에 따

르면 광장쪽 상가의 임차수요 역시 임대료 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입주 초기인 2015~2016년경 350만 원 안팎이었던 임대료가 최근엔 초기의 절반 정도로 조정됐다. 어느 상가든 임대료를 하향 조정하는 결정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다시 임대료를 올리려면 임차인과의 조정 과정이 쉽지 않은 특성상

임대료 자체를 내리기보다는 몇 달간의 무상 임대료를 제시하는 '렌트프리' 형태가 흔하다. 다만 위례의 일부 위태로운 상가 건물들의 경우 임대인들이 '렌트프리' 정도의 방면으로 버틸 수 없을 만큼 공실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료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위례의 공인중개사들은 주거도시로만 계획된 위례의 특징이 상권 수요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인중개사는 "오피스 지구가 없이 순수한 주거 수요만으로는 저녁 시간의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실 트램이 열리더라도 트램으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을 것"이란 우려도 있어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반기기만 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위례 상권 위기가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존재했다. 트랜зит물 북부에 위치한 P공인중개사 사무소 K 소장은 "사실 위기라는 말이 많지만 8호선 우남역 연장개통과 이마트 건립 계획 등 연이은 호재들도 예정돼 있다"며 "지금은 투자자 위주의 상가 수요가 위주이지만 호재가 반영된 2~3년 후에는 일반인들의 투자 수요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용 기자 cogito@

"환산보증금 상한액 올리고, 계약만료 6~12개월 전 통보" 정부, 상가 임차인 권리 보호대책 속도

계약갱신청구기간 확대 법 개정도 추진

정부와 여당이 상가 임차인 권리 높이기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부담이 더해진 영세업자의 숨통을 틔우자는 취지다.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을 연매출 24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을 넓히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을 인상할 예정이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상가법이 적용되면 임차인이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4억 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1000만 원으로 2억 원 이상 올렸다. 부산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세종·과주·화성시는 2억4000만 원에서 3억90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 밖의 지역은 환산보증금 상한이 2억7000만 원이다.

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도 상가인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분주하다. 9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만료 1개월 전 통보와 상가 재건축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상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계약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하기 위해서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12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 늘리게 된다. 또 계약갱신 거절 사유인 건물 재건축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다. 동시에 임차인에게 퇴거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관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전대차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한다. 또 여당은 계약갱신청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내용은 자유계약 원칙 위배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하는 자유한국당만 빼고 나머지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찬성 중이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지난달 경매 낙찰가율 70.4%...올들어 최저

지난달 경매시장이 올해 최저 수준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1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전국 평균 낙찰가율은 70.4%로 지난달 대비 2.7%p 하락해 2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이 70%대가 된 것은 작년 12월의 일시적인 급감을 제외하면 2016년 2월 이후 2년 반 만의 일이다. 용도별로는 토지, 업무상업시설 낙찰가율이 하락하고 주거시설은 전달과 비슷했다. 6월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토지는 7월 들어서는 65.8%의 낙찰가율로 급락해 지난달 대비 7.1%p 감소했다. 수도권 중 서울이 전월 대비 22.8%p 하락한 것이 낙찰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다. 지방에서는 강원과 경북이 20%p 하락했다.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서울 낙찰가율은 감정이 15억 원이 넘는 물건들이 낮은 매각가율을 보이면서 지난달 대비 19%p 감소했고, 지방에서도 감정이 상위권 물건들이 저렴하게 매각이 되며 낙찰가율 하락에 기여했다.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광주가 서울을 제치고 9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보이면서 지방 낙찰가율 하락을 방어해 전달 대비 동일하게 83.4%를 기록했다.

전국 월별 낙찰가율 및 낙찰건수 (단위: 건, %) 대상: 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연월	낙찰건수	낙찰가율
2017년 12월	3108	66.8
2018년 1월	3838	76.1
2월	3213	71
3월	3067	73
4월	3736	73.89
5월	3859	75.3
6월	3373	73.1
7월	3756	70.4

※자료: 지지옥션

한편 낙찰률은 지난달보다 1.4%p의 소폭 반등으로 37.0%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지난해 9월 40%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다. 평균응찰자수는 전달 대비 0.1명 증가했지만 작년 동월 대비에 비하면 0.7명 감소한 3.5명을 기록했다. 박은영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전월 대비 경쟁률은 증가했으나 낙찰가율은 하락해 경매가 사람들에게 인기는 있지만, 전보다 보수적인 가격으로 낙찰받아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진행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 김정용 기자 cogito@

해, 보존액 1회용 용안액

반복되는 눈의 불편함 원인 중 하나는 각막 미세손상

"눈의 불편함 원인부터 치유하세요"

분할된 원인 사유 용안액

PDRN 함유 리안® 용안액

각막 미세손상에는, 리안®

보습 | 영양공급 | 미세손상치유

PDRN 3가지 복합효과로 빠르게!!

PDRN 함유 리안®은 각막의 미세손상 치유에 도움을 줍니다.

일반의약품

제조업체: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판매처: 제일헬스사이언스

소비사상당량: 080-549-0002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항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영재판 ‘美 유령회사’ 재격돌

檢 “자녀 주택 마련 위한페이퍼컴퍼니”...이중근 회장측 “美 발령 따라 거쳐 제공”

법원의 여름 휴정기가 끝나고 2주 만에 재개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 재판에서 부영주택의 미국 자회사를 둘러싼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공방이 다시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21차 공판을 열어 부영주택 미국 자회사의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달 18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은 이날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부영주택이 미국 내 자회사 BY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것을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을 위해서가 아닌 이 회장 자녀들의 미국 내 주택 마련을 위해 설립한 회사라고 봤다.

검찰은 “(이 회장) 자녀들이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의 경유자가 BY인베스트먼트라며 ‘해외직접투자신고서상 BY인베스트먼트는 임대업으로 신고돼 있으나 임대수익은 (사실

상)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녀 이서정 씨가 햇지크리스트에서 쿼터마스터로 이사하면서 비게 된 주택에 대한 임대수익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부영주택의 자금이 수년에 걸쳐 BY인베스트먼트로 송금됐다. 검찰은 2011년 5월 30일 보내진 140만 달러를 비롯해 총 388만 달러의 자금이 이 회장의 장남인 성현 씨와 장녀 서정 씨가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는데 쓰인 것으로 판단, 이를 범죄로 규정했다.

반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주택 구입은 사적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성현 씨는 임차료를 지불했고, 서정 씨는 부영아메리카로 발령이 나 회사에서 집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성현 씨의 임차료 지불 내역이 재무제표에 없다는 검찰 측 주장에는 “단순 오류”라고 일축했다. 다만 서정 씨가 부영아메리카 직원으로 발령 난 후 BY인베스트먼트 소유 주택을 사용한 점에 대해 두 사업체 간 협조 문서 등 관련 자료

를 제출하지 못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해도 부영주택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자금이 회사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며 “불필요한 용도로 자금을 집행했다고 해도, 부영주택이 입은 손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본 자가 없어 횡령·배임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미국 내 페이퍼컴퍼니 설립 혐의 외에도 2013~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리고, 2010~2013년 세금 납부 목적의 비자금 조성하고자 부인 명의 건설사 임대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부영주택 자금 155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이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께 진행될 전망이다.

윤한슬 기자 charm@

가장 오래된 태극기 광복절 맞아 특별공개



13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고종이 자신의 외교 고문을 지낸 미국인 테니에게 하사한 것으로 알려진 태극기를 살펴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19일까지 국내에 현존하는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된 ‘테니 태극기’를 전시한다. 연합뉴스

“檢총장 인선때 법무장관 영향력 배제”

검찰개혁 ‘인사제도’ 권고 후보추천위에 민간 참여 확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인선 때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검찰총장 임명 등 검사 인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 개혁위는 우선 검찰총장 인선이 정치적 영향권 아래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국회의 관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

추천위는 검사장 출신 법조인 1명과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검찰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던 검사장 출신 법조인과 검찰국장을 위원에서 배제하고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검사(대검, 고검, 지검) 대표 3명을 위원으로 추가하도록 했다. 더불어 민간위원을 4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을 추천토록 했다. 검사 대표 3명 중 1명, 민간위원 4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을 뽑도록 했다.

검찰개혁위는 또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 중 골라 임명하도록 한 추천위원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또 추천위의 추천후보 수도 법무부 장관의 재량

을 축소하기 위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사 승진·전보 등 인사 시스템에도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사의 구체적 인사안을 심의하는 등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는 그동안 인사 원칙과 기준만 심의할 뿐 인사안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찰인사위의 권한을 강화해 법무부 장관의 ‘임명제’인 검사 3명을 ‘선출제’로 바꾸고 이 중 1명을 여성을 두도록 했다. 민간위원 2명 중 1명 이상도 여성을 선출하도록 했다.

장효진 기자 js62@

“하반기 국내여행 계획” 92%... 선호지 1위 ‘제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올 하반기에 국내 여행을 떠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파크투어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20~50대 남녀 3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하반기 국내 여행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가량은 하반기 국내 여행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올 하반기 국내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0%가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22%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떠날 것’이라고 했다.

여행을 계획하는 시기로는 여름휴가 시즌인 ‘8월’ (25%)을 가장 선호했다. ‘시기와 상관 없이 수시로’ (21%),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16%)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여행 동행은 ‘가족’ (36%), ‘배우자’ (23%), ‘연인’ (18%) 순으로 집계됐다.

여행 기간은 2박3일(45%), 1박2일(30%), 3박4일(18%) 순으로 선호했다. 해당 여행 기간을 선택한 이유는 ‘하루 이틀 정도 연차를 쓰고 다녀오기 좋아서’ (38%)라고 답한 이가 가장 많았다. ‘멀리 가지 않고 도심 속 휴식을 즐길 수 있어서’ (20%), ‘퇴근 후 급여행 등 당일 여행이나 1박 하기 좋아서’ (19%)라고 답한 이도 많았다.

여행을 계획 중인 지역은 제주도 (37%)가 가장 많았고, 강원도 (19%), 경상도 (18%)가 뒤를 이었다. 김소희 기자 ksh@

‘사이버 성폭력 근절’ 100일 작전 경찰, 특별수사단 설치 본격 가동

사이트 폐쇄·자금추적도 진행

경찰이 사이버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철구 부청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분청 사이버안전국에 설치하고, 11월 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 성폭력 사범을 특별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분청 사이버수사과·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부단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부단장인 여성 경찰관 김숙진 총경이 맡는다.

수사단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 이들과 유착한 해비 업로더·디지털 장의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또한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촬영 행위와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등 유통행위,

원본 재유포 행위·불법촬영 관련 금품 편취·갈취,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사이트 운영자들의 교사·방조행위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치단을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막는 한편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플랫폼이 있으면 사이트 폐쇄도 추진키로 했다.

특별단속은 사이버 분야에서 총괄하지만,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과 관련한 수사가 필요하면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범죄수사 추적수사팀 등 지능수사 전문인력도 투입해 자금·회계분야 수사를 벌인다.

민감률 경찰청장은 “불법촬영부터 촬영물 게시·유포·거래 등 유통 플랫폼, 디지털 장의사 등을 긴 유통 카르텔까지 일망타진하는 수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종합적으로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檢 ‘공정위 재취업 의혹’ 수사 지철호 부위원장 피의자 소환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업부장검사)는 13일 지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던 지 부위원장이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긴 당시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속해 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 또는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규정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 부위원장이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4차 산업혁명은 경제와 산업, 일자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 시대 최고의 공유 경제 전문가가 제시하는 명쾌한 해답

‘소유’가 사라진다.
‘고용’이 사라진다.
‘대기업’이 사라진다.

극단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경제의 모습이다. 지금까지 소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공유하며 살게 된다. 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고용되기보다 독립적 근로자로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 경제의 주체가 대기업에서 소기업 또는 개인으로 변화한다. 이것이 공유 경제의 권위자 아론 순다라라잔 교수가 이 책에서 보여주는 미래 경제의 단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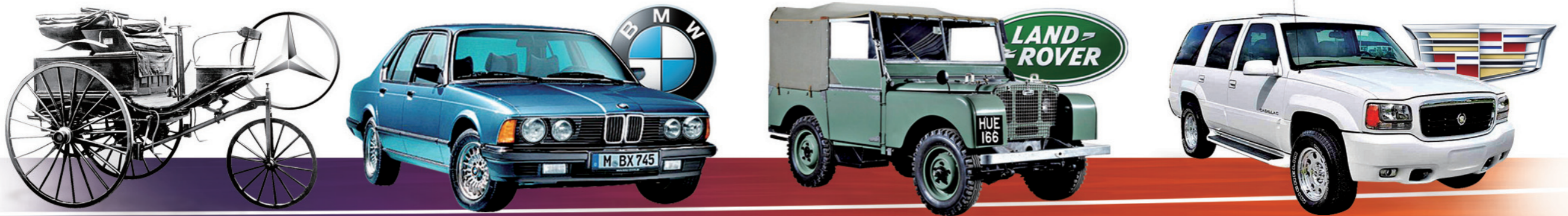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교통, 호텔, 은행을 비롯해 모든 산업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의 성격이 변하는 것이다. 이 책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경제를 형성하는 힘에 관한 통찰력 있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 할 베리안 구글의 수석 경제학자

공유 경제는 우리가 맞이할 운명이다. 지금까지는 공유 경제가 비즈니스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변화의 파도는 곧 찾아올 것이다. 아론 순다라라잔의 책보다 이 변화에 대한 더 좋은 지침은 없다. — 에릭 브린슨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아론 순다라라잔 지음 | 이은주 옮김 | 16,800원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벤츠 (1888년) 세계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인 페이턴트 모터카. 130년 전인 1888년, 세계 최초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180km 왕복 장거리 주행을 성공했다.

BMW (1977년) BMW 최고급 7시리즈는 1978년 3·5시리즈로 나뉘어 라인업의 가장 윗급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와 경쟁하며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양대산맥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은 1978년 처음 등장한 735의 모습.

랜드로버 (1948년) 시리즈1을 앞세웠던 랜드로버의 역사는 70년을 맞았다. 초기 미국 지프(JEEP)의 엔진과 변속기를 이용하던 알루미늄 보디를 썼던 랜드로버는 한결 가벼운 차체 덕에 지프의 성능을 앞질렀다. 이후 BMW의 품을 거치면서 놀라운 기술발전 속도를 이뤘다.

캐딜락 (1998년) 1998년 GM의 고급차 브랜드 캐딜락이 처음 선보인 대형 SUV '에스컬레이드'. 세보레 서브컴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편의장비를 더해 초호화 SUV로 거듭났다.

‘글로벌 명차’ 세기를 넘나든 ‘혁신의 여정’

2018년 기념하는 완성차 메이커

세기를 넘나선 자동차 역사 속에서 다양한 메이커가 수많은 브랜드를 앞세워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 브랜드의 정통성은 곧 이들의 가치를 대변하기도 한다.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과거를 앞세워 수많은 역사를 그 위에 고스란히 포개는 것 역시 브랜드의 가치와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작업이다. 오늘도 영겁의 역사 가운데 하루를 써 내려가는 완성차 메이커의 기념 모델과 브랜드를 정리해본다.

◇메르세데스-벤츠 130년 전 세계 최초 장거리 주행 성공 = 세계 최초의 자동차 장거리 주행기록은 130년 전인 1888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역사상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인 메르세데스-벤츠의 '페이턴트 모터카'가 등장한 지 2년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3개의 바퀴를 가진 자동차를 처음 개발한 독일의 칼 벤츠(Carl Benz)는 이 차의 실용성을 증명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100km가 넘는, 당시 기준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던 장거리 주행을 목표로 세웠다. 칼 벤츠는 아내, 두 아들이 함께 독일 만하임(Mannheim)에서 포르츠하임(Pforzheim)까지 이어지는 왕복 180km 주행을 도전했고 끝내 성공했다. 3개의 바퀴를 단 페이턴트 모터카가 이동수단으로, 나아가 자동차로 실용성을 증명한 첫 번째 사례로 손꼽힌다.

130년이 지난 오늘,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당시 최초의 장거리 여정을 고스란히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 코스에 투입해 장거리 주행을 완성했다. 편의성과 안전성을 기능적으로 결합한 혁신적 기술을 선보이며 자율 주행을 향한 비전에 가까워지고 있는 셈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세계 최초 장거리 주행 성공을 기념해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중 최초로 중국 베이징에서 레벨 4 수준의 자율 주행 연구 차량 테스트

독 벤츠, 세계 첫 장거리 주행 130주년
美 캐딜락, 고급 대형 SUV 론칭 20주년
英 랜드로버, 군용차로 첫 출시 70주년
자율주행 등 기술혁신으로 '또 다른 도전'

라이선스를 발급받기도 했다. 이로써 메르세데스-벤츠는 독일과 미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연구가 가능해졌다. 독특하고 복잡한 도시 교통 환경을 가진 베이징에서의 실질적 도로 테스트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완벽함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최초 고급 대형 SUV 에스컬레이드 20주년 = GM의 고급차 브랜드 캐딜락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초대형 프레스티지 SUV 에스컬레이드가 올해로 탄생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년간 4세대에 걸친 진화로 단일 모델로서의 존재감을 넘어 시대적,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한 에스컬레이드는 당당한 디자인적 존재감과 압도적 크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최고의 성능과 최첨단 옵션으로 전 세계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회사 측은 소개한다.

대당 1600여 개의 부품을 조립해 만드는 에스컬레이드는 1998년 2월 8일, 미국 텍사스주 북부에 위치한 알링턴(Arlington) 공장에서 첫 생산을 시작했다. 에스컬레이드의 모델명은 '강력하게 구축된 요소를 정복하기 위한 중세시대의 포위 및 공격 전략'이라는 뜻의 단어 '에스컬레이드(Escalade)'를 그대로 사용하며 럭셔리 SUV 시장을 평정하겠다는 포부를 담아냈다.

실제로 에스컬레이드는 1998년 개발 프로젝트 승인 이후 10개월 만에 생산을 시작한 지난 20년간 총 83만6422대(ESV, EXT 포함)의 생산량을 기록했다. 15년간 초대형 럭셔리 SUV 시장에서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총 800편 이상의 영화와 TV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등 대중문화 콘텐츠에 등장하며 에스컬레이드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데뷔 40주년 맞은 BMW 7시리즈 = 1977년 1세

대 모델로 처음 출시된 BMW 7시리즈는 현재까지 6세대를 거듭하며 진보적 럭셔리와 새로운 기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3과 5로 이름 지어진 새로운 모델 전략에 따라 5시리즈 윗급의 대형 세단으로 등장했다. 엔진과 변속기는 5시리즈 윗급의 것을 고스란히 옮겨왔지만 편의 장비는 차고 넘쳤다. 직렬 6기통 2.5-3.5리터 엔진을 바탕으로 고급차답게 자동변속기를 얹었다.

고급차였지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경제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주행 성능을 자랑했다. 7시리즈 데뷔 40주년을 맞아 국내에서도 기념 모델이 등장했다. BMW만의 맞춤 제작 프로그램인 'BMW 인디비주얼'을 통해 최고급 소재와 차별화한 옵션으로 제작된다. 전 세계 200대 한정 생산되는 'BMW 7시리즈 40주년 에디션'은 국내에 10대가 배정되기도 했다.

◇영국 랜드로버 데뷔 70년 = 랜드로버는 올해로 브랜드 탄생 70주년을 맞이했다.

랜드로버는 1948년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암스테르담 모터쇼에서 랜드로버 '시리즈 1'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후 70년간 정통 오프로드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시리즈 1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실용성을 중시한 차량으로 출시되었으며, 이후 랜드로버는 전 세계 누적 판매 700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초기 랜드로버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위해 하나의 군용장비로 개발한 지프(JEEP)를 베이스로 만들었다. 엔진과 변속기는 지프의 것을 이용했으나 디자인을 바꿨다. 차체도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녹이 슬지 않고 내구성이 뛰어났으며 차체가 가벼워 성능은 지프를 앞섰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프가 단순한 양산형으로 출시됐을 때 랜드로버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다. 다양한 형태로 가지 치기 모델을 내세운 덕에 군용차는 물론 농업용을 포함한 다양한 용도로 영토를 넓힌 덕이다.

이후 지프가 대중적인 네 바퀴 굴림 모델을 지향하며 영역을 넓히는 동안 랜드로버는 미국 포드와 BMW에 인수되면서 뛰어난 기술력을 습득했다.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니치 마켓을 겨냥한 글로벌 고급 SUV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김준형 기자 junior@



왼쪽부터 SM5 1세대, 2세대, 3세대.

스무살 된 르노삼성 'SM5' "사양 UP, 가격은 그대로"

20주년 신모델로 스테디셀러 명맥

르노삼성자동차의 SM5가 올해로 출시 20주년을 맞았다. 1998년 3월 출시된 SM5는 브랜드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모델이다.

SM5의 20년간 누적 판매량은 102만 대(2017년 말 기준)에 달한다. 출시 첫해 내수 판매 4만 대를 돌파했고, 연평균 5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꾸준히 기록해 왔다.

1세대 SM5는 '고급화'와 '내구성'을 키워드로 한국 시장에 나타났다. SM525V와 SM520V 모델은 세계 10대 엔진에 18년이나 선정된 닛산의 6기통 'VQ 엔진'을 탑재해 소비자에게 뛰어난 주행감과 정숙성을 선사했다. 닛산 SR 엔진을 탑재한 SM520, SM518 모델은 타이밍 체인을 적용하는 등 훌륭한 내구성과 저렴한 유지비용을 자랑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부식에 강한 아연도금 강판, 조류 배설물이나 산성비에 강한 신기술 도장 역시 차량 내구성 강화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SM5는 2001년 12월 국내 중형차 판매량 1위(6508대)를 기록했다.

2005년 1월에 출시된 2세대 SM5는 안전사양을 대폭 강화했다. 이 차는 건설교통부가 의뢰한 안전도 평가에서 '정면 충돌 시 가장 안전한 차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산 중형차 최초로 스마트 에어백, 스마트 카드 키, 풋 파킹 브레이크 등도 적용됐다.

고급 사양을 두루 적용한 3세대 SM5는 2010년 1월에 출시됐다. 마사지 기능 내장 전동식 가죽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조이스틱 방식의 내비게이션 시스템, 타이어 공기압 경고 시스템 등이 적용됐다. 'SM5 TCE' 모델로 국내 다운사이징 시장을 선도하기도 했다. SM5 TCE는 최고 출력 190마력을 발휘하는 1.6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게트락제 6단 듀얼 클러치 자동변속기를 탑재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해 9월, 2018년형 SM5를 출시하며 다양한 편의 사양을 추가했다. 17인치 투톤 알로이 휠, 최고급 가죽 시트, 앞좌석 파워-통풍시트, 전자식 룸미러(ECM)과 자동 요금정수 시스템(ETCS), 좌우 독립 풀오도 에어컨 등이 가격 인상 없이 추가됐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www.bongpyung.com

“정직한 재료로 정직한 맛을 만들어 갑니다.”

국내산 메밀로 정직하게 생산하겠다는 일념, 봉평농원의 이유있는 20년 고집입니다. 정직한 재료로 건강한 먹거리만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국 대리점 모집 !! ☎ 031-323-0052

국내산 메밀의 선두주자 -
[주]봉평농원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진동길 18-10 Tel.033.333.8942

빛장 푸는 中 전기차 시장, 국내 배터리업계 다시 충전 시작

원재료 가격 상승, 중국 보조금 리스트 탈락 등 악재의 연속이었던 국내 배터리 업체가 한숨 돌리게 됐다. 최근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압력이 거세지면서 코발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2020년을 끝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업체를 둘러싼 부정적인 이슈들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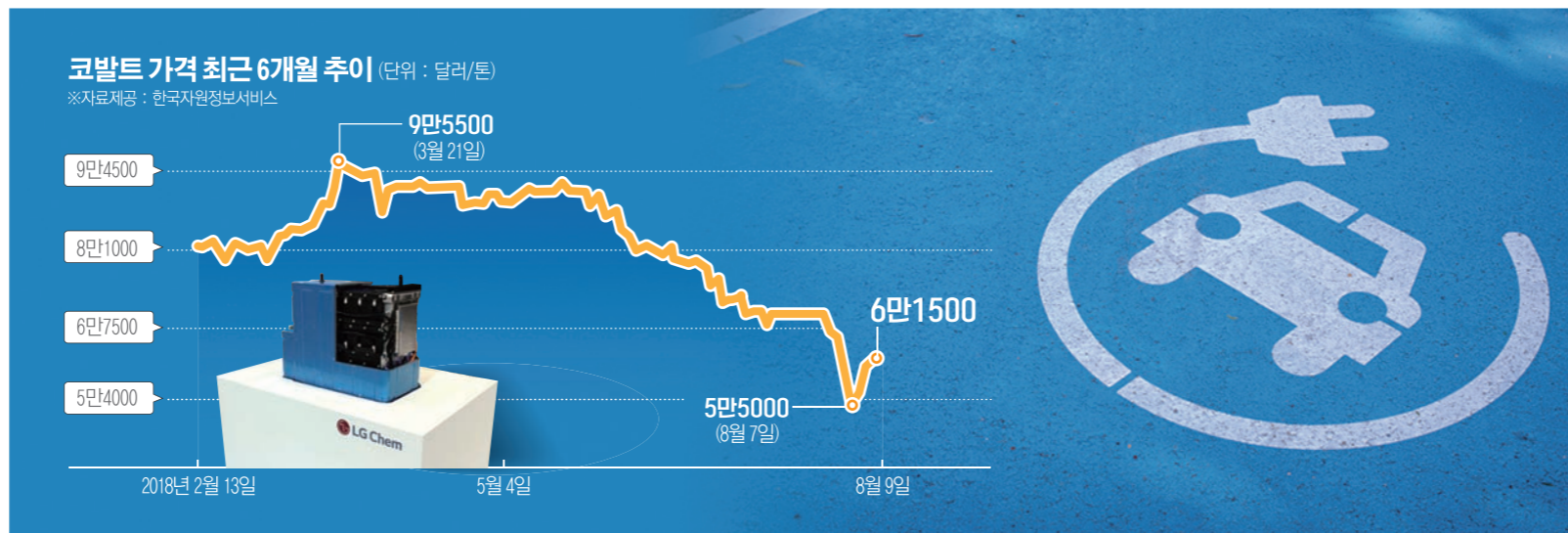
◇전일 대비 '7.8% 급락'... 원재료 고민 해결되나? = 13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국제 코발트 가격은 이번 달 7일 톤(t)당 5만5000달러로 전일 대비 7.8% 급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국제 코발트 가격은 올해 3월 21일 최고점인 톤당 9만5500달러를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다. 7월 들어 7만2500달러로 떨어졌으며, 이번 달 들어서는 6만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 관계자는 "공고민주공화국(DRC)의 올해 상반기 코발트 생산량이 약 7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면서 공급이 안정화를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소식에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업계가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배터리 NCM622는 니켈·코발트·망간의 비율이 각각 6대 2대 2인 제품으로, 코발트 비중이 높다.

또한, 코발트는 배터리 생산 원가 중 약 10%를 차지하는 만큼 업계는 코발트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코발트는 늘 '공급 불안'으로 높은 가격을



中 당국, 2020년 보조금 전면 철폐 원재료 코발트값도 울며 겨자 먹기

국내 업체 기술력 앞서 추월 자신

유지해 왔다.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국인 콩고가 내전 중인 데다, 코발트 채굴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아 가격 변동이 불안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은 제품 가격을 원료 가격 상승에 연동시키는 '가격 연동제'를 추진해 왔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지난해 "배터리 원재

료 가격 부담을 자동차 업체와 공유하지 않으면 산업 생태계가 깨질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외에도 LG화학은 세계 최대 코발트 정련업체인 중국 화유코발트와 조인트벤처(JV) 설립을 추진해 코발트 등의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수직계열화'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코발트 가격 하락이 원가 절감에 도움이 돼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빛장' 풀린다- 2020년 전기차 보조금 철폐 =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은 항상 국내 전기차 배터리업체의 큰 고민이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의 4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년 반 동안 국내 업체의 전기차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기차의 절반가량이 보조금으로 나오는 만큼 중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한 전기차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1차 심사인 '형식 승인'을 받아냈지만 결국 2차 심사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대로 성장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은 중국산 배터리 출하량이 집계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에서 3사 모두 톱 10위 안에 들어간다. SNE리서

치 관계자는 "2018년 상반기 전 세계 전기차에 출하된 비중국산 배터리 출하량 순위로 LG화학이 2위, 삼성SDI가 4위, SK이노베이션이 7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이 포함돼 있을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같은 기간 전 세계 배터리 출하량을 살펴보면 1위는 일본 파나소닉, 2위는 중국의 CATL로, 두 기업은 근소한 차이로 1·2위가 나뉘었다. 또한, LG화학과 삼성SDI가 각각 2.8GWh, 1.3GWh로 출하량 성장률이 시장 평균보다 낮았다면 중국의 CATL, BYD 등은 한국업체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업계는 중국 배터리 보조금이 전면 폐지되는 2020년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기술력이 앞선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자유로워진다면 국내 업체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단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보조금 빛장이 철폐될 것을 대비해 업계는 중국으로의 진출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LG화학은 중국 장쑤성 난징시에 제2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투자 계획을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2공장은 10월 착공해 내년 10월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LG화학은 해당 공장 설립을 위해 2조 원대의 투자비용을 쏟아부었다. 해당 공장은 설비와 공장 규모를 차츰 늘려 2023년까지 연간 32GWh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세계 최대 시장 '진검승부' 준비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셀 생산 모습.

LG화학 2조원 투자 中 2공장 내년 가동

SK이노베이션, 공장 부지 물색 "보조금 일몰 시 바로 수주 연결"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 중이다. 현재 중국의 차별적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중국으로의 판매 길이 막힌 국내 업체들이 보조금 일몰이 예상되는 2020년 중국 시장 재진입을 목표로 시장 공략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먼저 LG화학이 최근 중국 현지에 약 2조 원대의 금액을 투자, 전기차 배터리 2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해당 공장은 10월 착공에 들어가며, 내년 10월 상업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투자는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2023년까지 연간 32GWh의 생산 능력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LG화학은 중국 난징시에 전기차 배터리 1공장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 생산시설은 2014년 투자를 결정해 2015년 10월 준공됐다. 2공장 부지로부터 50여km 떨어진 난징시 신강 경제개발구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 등으로 인해 중국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G

화학이 중국 공장 설립에 적극 나서는 것은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완전히 폐지되는 2020년을 겨냥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현재 중국에서 수주가 힘든 것은 기술력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인한 것"이라며 "지나해부터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자동차 기업들과 활발하게 배터리 공급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 일몰 시 곧바로 수주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SK그룹 차원의 '차이나 인사이드' 전략을 활용, 중국 현지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말 중국 투자를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올해 5월 해당 회사에 864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현재는 배터리 사업 확대를 위해 중국 현지에 공장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들 업체는 중국 배터리 수주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글로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시장에서 50% 이상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노란우산공제는 KBIZ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사 이금희, 서경석



절세혜택

납입부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가 적립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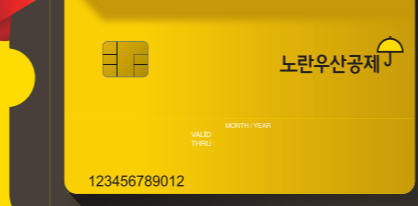
압류금지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복지

상해보험(2년), 법률·세무 등 무료 자문, 휴양시설, 제휴카드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제휴카드 신규 출시

- 11종의 사업성 경비 최대 5% 포인트 적립
- 병원·약국·대중교통 5% 할인
- 전 주유소 리더당 50원 할인
- 핸드폰 구매 시 요금할인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9988.or.kr) 복지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세법에 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본 상품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우체국,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보험공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 감독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FAANG' 아닌 'MANG' 시대 열린다

〈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

〈MS·아마존·넷플릭스·구글〉

美 기술주 옥석가리기 본격화

미국 기술주의 옥석 가리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미국 뉴욕증시를 견인해온 주도주가 FAANG(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에서 MANG(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SNS의 가입자 수 증가세가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차세대 먹거리와 성장동력의 다변화에 따라 IT 주도주 자리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는 관측이 다.

◇**페이스북**·트위터, 실적 좋았는데 왜? =지난달 말 SNS 대표주자인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20% 안팎의 급락세를 기록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실적지표만 놓고 보면 호실적이었다. 페이스북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9% 증가한 132억3000만 달러를, 영업이익은 33.2% 늘어난 58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트위터 역시 2분기 매출액이 23.8% 늘어난 7억1000만 달러를, 영업이익은 8000만 달러를 기록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사실상 지난해 3분기부터 이어져 온 탄아라운드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장이 주목한 것은 실적이라기보다 월간 활동 유저 수(MAU)였다. 페이스북의 MAU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트위터는 MAU 지표가 전 분기 대비 100만 명 감소한 3억3500만 명을 기록해 성장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13일 보고서에서 "이들 기업이 활동 사용자 수 증가세를 무기로 성장해왔던 만큼 실적 발표 결과에서 이 부분의 감소세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올해 3월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있었다는 점에서 하반기 MAU 지표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문 연구원은 "MAU 감소는

페이스북·트위터 2분기 호실적에도 추가 급락 활동 유저수 감소로 매출 둔화 가능성 커 차세대 먹거리·성장동력 등 다변화

클라우드·AI·자율주행 등 신산업 다각화 MS·아마존·넷플릭스·구글 다시금 주목 '애플' 주도주로 전망한 'MAGA'도 유망

트래픽 감소와 함께 광고 매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성장성 둔화라는 우려가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MANG**는 왜 주목받고 있나 = 국내 증권가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FAANG에서 MANG으로 미국 기술주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MANG의 4개 기업이 공통으로 매출 다변화했다는 점과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새롭게 떠오르는 신성장산업으로 다각화하고 있는 사업 모델에 주목하고 있다. MAU가 중요한 광고 비중에 치우친 기업보다는 수익 구조가 다변화한 기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모바일 시대에 스마트폰 사업 실패로 IT 주도주에서 밀려났던 MS가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MS는 '윈도'를 바탕으로 1990년대 IT 붐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으나 PC시장의 쇠락과 함께 뒤늦게 뛰어든 스마트폰 사업으로 회사 전체가 휘청이게 됐다. 이후 과감히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에 집중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016년 30억 달러에서 2020년 140억 달러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에서 MS 사업 부문 내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부 성장 역시 기대된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머신러닝·에널리틱스 기능 등을 통합한 애저 프리미엄 서비스 수요 증가는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마존도 견고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사업부문 이익 모멘텀과 캐시카우인 아마존 웹서비스(AWS)의 높은 외형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넷플릭스는 아시아에서의 순증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향후 고성장이 기대된다.

안 연구원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애플에 이어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할 기업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의 활성화 및 성장에 기대되는 만큼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MANG의 실적은 올해 이후에도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22.3% 오를 것으로 봤다. 또 내년에는 25.5%, 2020년에는 21.5%로 매년 20%대 고성장세를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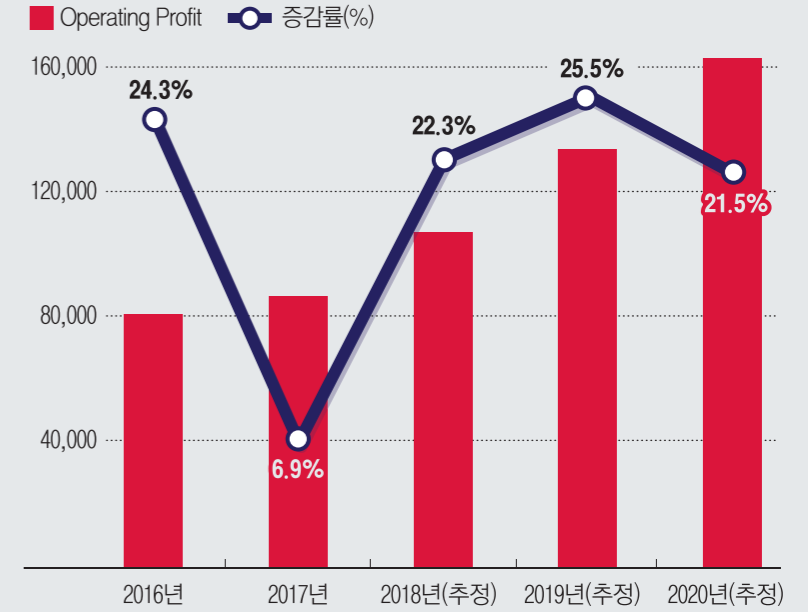
MANG과 함께 최근 언급되는 것으로 'MAGA'가 있다. MAGA에는 MS, 아마존, 구글, 애플이 포함된다. MAGA는 애플이 여전히 주도주 자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MANG의 경우 포화 상태에 도달한 스마트폰 사업의 비중이 높은 애플이 주도주 역할을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없다고 보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애플이 최근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해 MAGA에 대한 기대감도 만만치 않다.

특히 MAGA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슬로건인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와 우연히도 첫 글자가 같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이들 기업의 시대가 다시 열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MANG 실적 성장세 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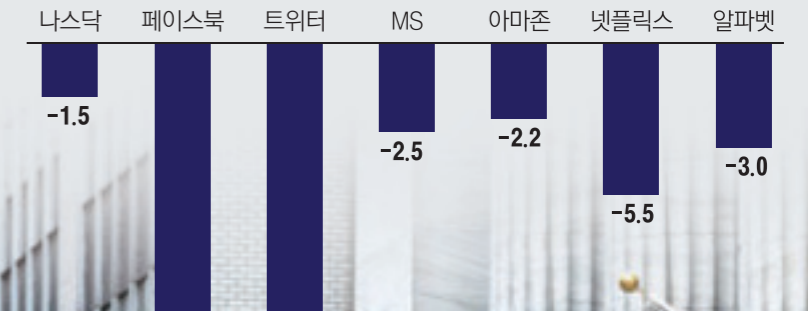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출처: 블룸버그,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페이스북·트위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엇갈리는 흐름

(단위: %, 페이스북 2분기 실적발표(26일) 이후 수익률)

*출처: 블룸버그, 대신증권 리서치앤드·스트라티지본부



투자전략도 바뀔 때...주목해야 할 국내 업체는

네이버·스튜디오드래곤 전망 밝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술주와 관련해 투자 시각도 달리 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즉 MANG(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중심으로 투자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MANG의 성장이 한국 업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네이버와 스튜디오드래곤에 주목했다. 이들 기업이 MANG과 비슷한 성장궤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 연구원은 "네이버는 구글과 아마존 MS가 보여주고 있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투자

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달리 네이버의 경우 한국 내 포털 영향력과 트래픽이 절대적 상황이며 전자상거래, 결제, 웹툰 등의 차별화된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콘텐츠 제작업체 스튜디오드래곤의 경우 넷플릭스의 아시아 시장 확장 수혜주로 꼽혔다. 안 연구원은 "넷플릭스가 아직 신시장에서 침투율이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서 "넷플릭스가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한 아시아의 경우 사업 확장기에 있으며 성장 원동력은 '아시아 콘텐츠'에 있다"고 설명했다.

MANG과 비슷한 성장궤도 유지 삼성SDS 등 클라우드기업도 관심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MS와 아마존 등이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 관련 국내 기업으로 네이버와 삼성에스디에스, KT, 티몬비즈온, NHN엔터테인먼트, 다우기술, 가비아, 비트컴퓨터 등을 꼽았다.

김 연구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인프라 확대로 서버용 D램의 수요가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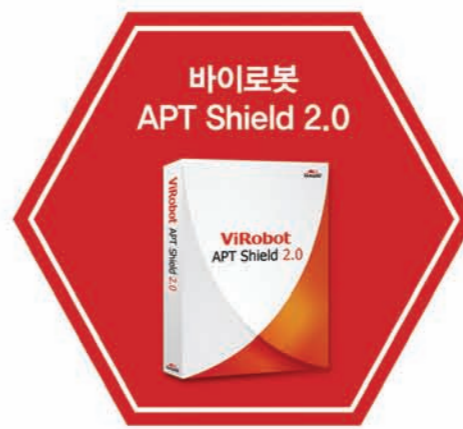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무더위 날릴 스릴러 소설, 이전 꼭 읽어야 돼

최근 111년 만에 서울에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더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 타는 듯한 불볕더위를 식히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써봐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은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간담이 서늘해지는 미스터리·스릴러 소설은 어떨까. 영풍문고는 7월 한 달간 추리소설의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약 2배의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9일 전했다. 인터파크도 서도 월별 장르소설 판매 추이에서 여름 시즌(6~8월)이 겨울(12~2월) 대비 3배가량 높은 판매됐다고 발표했다.

◇출판계, 여름마다 '공포시리즈' 선배 = 출판사들은 여름 성수기에 맞춰 미스터리·스릴러 신작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지난해 6-8월 여름 시즌에 미스터리·스릴러 등 장르소설 출간 비중은 전체 43%를 차지했다.

인터파크도서는 문학MD가 추천하는 올여름 미스터리 기대작 6편을 모아 기획전으로 꾸렸다. 조선 효종 즉위년 도성 한복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다룬 김별아 작가의 '구월의 살인', 동아리 합숙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로 펜션에 갇힌 대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연쇄살인을 그린 이마무라 마사히로의 '시인장의 살인'이 리스드다.

무장괴한으로부터 아들을 지켜내는 엄마의 활약을 그린 '밤의 동물원', 2018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최종 후보작 '바그다드의 프랑켄슈타인', 19세기 말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무차별 살인사건을 다루며 일본 주요 문학상을 수상한 '살인의 고백'도 추천작이다.

여름철 서점가 미스터리·스릴러 강세...출판업계도 신작 집중 출시 판매량 늘며 인터파크도서 '구월의 살인' 등 6편 MD 추천 기획전도 애거서 크리스티·히가시노 게이고 등 추리소설 대가 작품 순위권에



◇꾸준한 인기몰이...다시 보는 거장들의 추리 소설 = 고전적 미스터리·스릴러 소설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5년 첫 출간된 고바야시 야스미 '엘리스 죽이기'가 상위권에 집계됐다.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가진 환상성에 그

로테스크한 묘사가 더해진 미스터리 소설이다.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가며 연쇄 살인마를 추적하는 과정이 생생히 담겨 '고전과 미스터리'의 성공적 결합'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최근 SNS에 소개되면서 순위 역주행 중이다.

80여 편의 장편과 20여 편의 단편 등을 집필한 현대 '추리소설의 여왕' 애거서 크리스티(1890-1976)의 작품들도 꾸준히 인기가 있다. 3일 알라딘이 집계한 순위에서 애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10위에,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은 12위에 랭크됐다.

1934년에 출간돼 '밀실 살인 사건'의 걸작으로 불리는 '오리엔트 특급 살인'은 크리스티가 창조한 탐정 에르클 포로와가 등장하는 소설 가운데 가장 많이 팔렸다. 영화로도 제작됐다. 그의 소설은 대부분은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면식범의 소행을 다룬다. 범죄 동기는 유산 상속이 많다.

◇읽고 보는 히가시노 게이고...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 현대 일본 추리소설을 대표하는 작가인 히가시노 게이고가 2007년에 쓴 5번째 장편소설 '11문자 살인사건'이 11년 만에 개정판으로 나왔다. 책은 11글자에서 시작된 의문의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다. 치밀한 플롯과 기막힌 반전이 담겨 있어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히가시노는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썼다. 데뷔작 '방과후'를 비롯해 '백마산장 살인사건', '가면산장 살인사건' 등은 밀실 트릭 등 수수께끼를 풀어 범인을 찾는 방식으로 전개돼 사랑받았다.

미스터리 스릴러 '눈보라 체이스'도 주목을 끈다. 책은 제목처럼 겨울 눈보라 속에서 펼쳐지는 쫓고 쫓기는 스토리를 담았다. 스키장을 다녀온 후 갑자기 살인용의자가 된 주인공 와키사카 다쓰미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미인 스노보더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김소희 기자 ksh@

새로 나온 책



나는 사업이 가장 쉬웠어요 최인규/이코노믹북스/1만5000원

저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동안 종교에 빠져 있다 종교단체에서 쫓겨나 노숙자 신세가 됐다. 일자리를 찾아다니던 중 우연히 복사용

지 사업이 돈이 된다는 정보를 얻게 된다.

그 당시는 프린터가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때였다. 하지만 무일푼이던 그는 종교단체에서 같이 나온 여자친구에게 200만 원을 빌려 작은 트럭을 구입해 사업을 시작했다.

무거운 복사용지를 들고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흘린 땀은 저자에게 학벌과 가진 것 없는 환경에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을 다지게 만들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집안 배경, 스펙 따위로 자신의 능력을 한계 짓지 말라'고 조언한다. 또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상상하라"고 말한다.

그가 차용금 200만 원에서 연매출 100억 원대 기업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용기가 자리한다. 저자의 이야기는 환경이나 배경을 탓하며 좌절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면 반드시 꿈이 이뤄진다는 희망을 준다. 저자는 이 책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



생각에 관한 생각 프로젝트 마이클 루이스/이창신 옮김/김영사/1만8500원

이 책은 행동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정초(定礎)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이스라엘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과 단짝 동료인 아모

스 트버스키에 대한 이야기다. 이들이 주류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새로운 의사결정 이론을 탄생시키는 과정이 담겨 있다.

책은 카너먼과 트버스키의 어린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 연구 결과를 내게 됐는지 보여주는 과정에서 행동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알게 되고, 두 사람의 인간적 면모까지 엿볼 수 있다.

'전망이론'으로 명명된 이들의 획기적인 의사결정 이론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주류 경제학에서 믿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도, 기대효용 이론을 따르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행동경제학의 토대를 됐다. 특히 300년 전전통경제학의 프레임워크를 전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라는 점에서 혁신적 연구였다고 평가받는다.

주목할 점이 또 있다. 미국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가인 B.F. 스키너와 201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 등 우수한 인물들이 등장해 직접 두 천재 심리학자에 관한 숨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미국 배우 브래드 피트 주연의 동명 영화로도 만들어져 유명한 책 '머니볼'을 쓴 저자가 행동경제학의 탄생을 생동감 있게 엮은 것도 관련 포인트다.

'문프셀러' 따라읽기...20대 '소년이...', 60대는 '국수'

'국수' '소년이 온다' '평양의...' 3권 청와대 공개 후 4일간 판매 251%↑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휴가 때 읽은 것으로 알려진 '소년이 온다' '국수' 등은 전주 대비 판매량이 약 3배 늘어 베스트 셀러에 등극했다. 7일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별칭 '문프셀러'가 진열돼 있다. 뉴스

김성동의 '국수' (출판사), 한강의 '소년이 온다' (창비), 진전규의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타커스)가 서점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때 읽은 책 목록으로 밝혀지면서다. 이들 도서에는 '문프셀러' (문 대통령+베스트셀러)라는 별칭까지 따라 붙었다.

에스24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읽은 도서 3권의 판매량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된 직후 4일간 약 251.2%(6일 오전 9시 기준, '국수'는 세트와 1권 판매량 합계) 늘었다. '평양의 시간은...'이 전주 대비 189.6%, '국수'는 351.5%, '소년이 온다'가 229.6%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보문고도 이들 도서가 발표 직후부터 6일까지 1264권이 팔렸다고 밝혔다. 전주 대비 20배가량 판매가 증가한 것이다. 해당 3종은 최근

일주일 동안 일평균 판매량이 60여 권 수준이었다. '평양의 시간은...'은 일평균 7권 팔리던 것이 12.7배인 89권이 팔려나갔다. 일평균 판매량이 25권이던 '국수'는 3.6배 인 91권, '소년이 온다'는 일평균 29권에서 2.4배 증가한 70권이 판매됐다.

독자들의 성별·연령별 차이가 보였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소년이 온다'는 20~40대 여성, '평양의 시간은...'은 50대 남성, '국수'는 60대 남성층에서 인기가 높다.

역대 대통령들이 휴가 기간 읽은 책은 정국 구상이나 고민, 또는 메시지로 해석돼 왔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고민하는 것과 생각하는 바를 엿볼 수 있다.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 동안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소년과 주변 사람들이 겪은 이야기다. '국수'는 1890년

대 전후 충청 내포 지역을 무대로 민중들의 저항과 붕기를 소재로 삼았다. '평양의 시간은...'에는 진전규 전 기자가 6차례 북한을 방문해 취재한 기록이 담겨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문 대통령이 여름 휴가 때 읽은 도서 목록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SNS에 "책도 읽지 않고 무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며 도서 '명견만리'의 일독을 권했다.

발표 직후 '명견만리' 시리즈의 판매는 급증했다. 에스24 집계에 따르면 책 판매량은 대통령의 언급 이후 전주 대비 약 18배 증가했다. 인터파크도서는 "지난해 문 대통령이 읽었다고 알려진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이상한 정상 가족'도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ksh@



www.timedaily.co.kr
Almanac 070-7840-1715

MASERATI
COLLECTION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ㅎㅎ

ㅎㅎ

ㅎㅎ

“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할까요?
”

아이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와 사회가 함께, 가정과 기업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는 가정과 사회를 든든히 하고, 나라의 경쟁력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어린이집 100호 건립으로
함께 키우겠습니다

함께가 힘이다.
하나가 힘이다.

낮에는 회로 전문가, 밤에는 요리사

SK하이닉스 김경태 책임·김홍득 선임의 '이중생활'

워라밸(Work and Balance). 밤늦게 일하는 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여겼었던 우리나라에 최근 들어 등장한 단어가. 오늘날 사회는 과중한 업무로 지친 개인을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워라밸 시대에 SK하이닉스는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취지로 저녁에 문화 강좌를 진행한다. 필라테스부터 시작해 방송댄스까지 종류가 천차만별이다. 낮에는 SK하이닉스 D랩 설계팀 소속인 김경태 책임, 김홍득 선임은 어떤 이중생활(?)을 할까. SK하이닉스 공식 블로그에 소개된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그들은 다양한 수강과목 중 요리를 택했다. 김 선임은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칼을 들었다. 그는 "기숙사에 살다 보니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느낌이였다"며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던 찰나, 한식 조리사 자격증반 강좌가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김 책임은 후배 따라 강남 간 사래다. 같은 사무실, 방에서 일하고 지내는 김 선임의 추천으

유연근무제 도입에 시간 활용 저녁 문화강좌 '한식 수업' 수강 "요리, 업무에 지장 주지 않아 워라밸 통해 오히려 집중력 향상"

로 요리를 시작하게 됐다. 김 책임은 "회사에 유연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개인 시간이 예전보다 많아졌다"며 "그 시간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요리를 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요리에 도전하게 된 두 명은 집중력 하면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다. 그들이 수행하는 회로설계 업무는 고도의 세밀함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김 선임은 "D랩 설계는 같은 부서, 다른 부서 엔지니어들과 논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무를 수행할 때 협업 능력과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과 요리는 엄연히 달랐다. 두 직원은 요리를 시작할 때 어슬픈 표정을



SK하이닉스 D랩 설계팀에서 근무하는 김경태(왼쪽) 책임, 김홍득 선임은 "요리를 통해 스트레스가 줄었고, 업무 집중도도 높아졌다"고 말한다.

보이기 일쑤였다. 계란찜, 생선전과 같은 간단한 요리를 할 때도 그들에게는 잔칫상을 준비하듯 상당히 비뻤다. 실력은 미숙했지만 그들은 요리를 통해 경험의 폭이 넓어졌다. 이전과 달리 가족들에게 자신이 만든 요리를 선보이기도 한다. 김 책임은 "내가 만든 요리를 지인들에게 선보여서 그렇지, 그 전보다 대화가 풍성해졌

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요리를 통해 업무 집중도가 더욱 높아졌다. 두 직원 모두 "워라밸은 말 그대로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요리는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즐거움을 준다. 자연스럽게 하루가 즐거워지고 업무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현대차, 라오스 홍수 3.5억 지원

현대차그룹이 라오스에 도울의 손길을 건네며 인도적 지원을 이어간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달 23일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라오스 남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3억50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금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1억 1000만 원을 마련했고 현대건설과 현대

엔지니어링이 1억3000만 원을 지원한다. 성금은 라오스 정부 또는 각 구호단체에 전달해, 라오스 현지 피해 복구를 위해 쓰일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런 홍수 피해를 입은 라오스 국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빠른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에 힘을 모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썰전'故 노회찬 의원 빈자리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채운다

3주 연속 결방됐던 '썰전'이 4주 만에 새 패널과 함께 방송을 재개한다.

JTBC 측은 16일 방송되는 '썰전'의 새 패널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사진) 의원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썰전' 제작진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비보에 진보 논객 고 노

회찬 의원의 자리를 대신할 후임 섭외에 신중을 기하며 고심한 끝에 당분간 '썰전'을 이끌어갈 진보 패널로 이철희 의원을 결정했다. 이철희는 '썰전'에 2013년 첫 방송부터 2016년까지 출연했던 '썰전 멤버'로, '썰전'이 시사예능 토크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준 깊은 인연이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인사

-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자동차정책과장 이상일 △자동차운영보험과장 이대섭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박대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김상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임배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박영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이강녕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장 홍성호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역량과장 정우진
- ◆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장 홍병석
- ◆기초과학연구원 △상임감사 최종배
- ◆해양경찰청 <승진> △해양경찰청 차장 류춘열(차안정감) △기획조정관 오윤용(차

- 안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홍희(전보) △해양경찰교육원장 고명석(차안감) △경비국장 김병로(경무관) △구조안전국장 김병모 △수사정보국장 윤성현 △장비기술국장 김도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윤병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여인태

부음

- ▲고현자 씨 별세, 안병수(경동엔지니어링 전무)·병학(한국자산관리공사 공유개발부 팀장) 씨 모친상, 최정수(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교육연구관) 씨 장모상 = 13일, 건국대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02-2030-7903
- ▲김순달 씨 별세, 강일선(스포테인대

- 표)·일호(전 서울신문 기자)·일수(KBS PD) 씨 모친상, 이정선(드라마작가) 씨 시모상 = 12일, 삼천포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9시, 055-835-9944
- ▲박우성 씨 별세, 광기(대전대 교수)·광득(대구대 교수) 씨 부친상, 총성의(성신여대 교수) 씨 장인상, 황혜숙(다우에프에이 연구부소장) 씨 시부상 = 13일, 운경재단 모래야 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6시, 053-801-9999
- ▲설현준(전 대구MBC 사장-전 쌍용제지 사장) 씨 별세, 진성(광양석산 대표)·규영·화영·백영(개인 사업)·수영(경대대교수) 씨 부친상, 백성진(인주 대표이사)·조성익(전 한국에타결체원 사장)·차문중(삼성경제연구소 대표이사) 씨 장인상 = 11일, 삼성서울

- 원, 발인 15일 오전 11시, 02-3410-6915
- ▲이이순 씨 별세, 백점숙(베스트필드 빌딩 대표) 씨 모친상, 조정호(목사)·장군철(베스트필드 대표)·서동수(베스트필드 상무) 씨 장모상 = 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9시, 02-3010-2292
- ▲이정자(숙명여자중·고등학교 재단 이사장, 전 숙명여자고등학교 교장) 씨 별세, 정철(개인 사업)·진(치과의사)·승연(미국 아이다호 주립대 교수) 씨 모친상 = 12일, 삼성서울병원, 15일 오전 8시, 02-3410-6917
- ▲이혜열 씨 별세, 신은선(이에스브로드컴퍼니 대표) 씨 모친상 = 13일, 강원대학교병원, 발인 15일 오전 9시 50분, 033-254-5611

스타벅스, 광복 73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자손에 장학금 1억

대학생 50명 각 200만원 지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13일 광복 73주년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자손 우수 대학생 50명에게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장학금은 전국 스타벅스 매장 1190여 곳에 비치된 '사랑의 열매' 모금함에 모인 금액과 스타벅스 임직원 바자회 모금액을 더한 5000만 원의 성금에 회사 기부금을 추가한 총 1억 원의 기금으로 마련됐다. 순국선열에 감사하는 스타벅스와 고객, 그리고 임직원의 마음이 한 데 모인 이번 장학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광복회가 추천하는 50명의 대학생에게 각 200만 원씩 지원됐다.

스타벅스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8월마다 독립유공자 자손 우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19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자손 우수대학생 지원 기금전

13일 서울 소공동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광복73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자손 장학금 지원 전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스타벅스코리아

총 133명의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에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석구 스타벅스대표이사는 "대학생 여러분이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고대영 기자 kdae0@

LG하우시스, 도산 안창호 기념관 개·보수

LG하우시스가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도산 안창호 기념관'의 시설 개·보수 공사를 지원하며 애국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LG하우시스는 지난 13일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내에 위치한 '도산안창호기념관'에서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김재실 회장, 서울지방보훈청 오진영 청장, 서울남부보훈지청 강만희 지청장, LG하우시스 CHO 감장성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관 재개관식을 가졌다.

LG하우시스는 이번엔 1998년 개관 후 20년이 지나 노후된 기념관의 1층 전시실 및 지하 강당의 바닥재와 인테리어 필름 등을 교체하는 개보수 공사를 진행, 관람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기념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감장성 LG하우시스 CHO 상무는 "광복 73주년을 앞두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을 새롭게 단장하는데 힘을 보탬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nyun@

무주YG재단, 내년까지 청소년사업 3.4억 지원

YG엔터테인먼트에서 설립한 비영리 재단 무주YG재단은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이화여자대학교에 7000만 원,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 9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무주YG재단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에 1억5000만 원,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 1억9000만 원 등 총 3억4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주YG재단은 2015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와 함께 다양한 청소년 지원 사업을 꾸려가고 있다. 2009년부터는 기부금 프로젝트인 'WITH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올해 3월



무주YG재단과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가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서 미디어 산업 꿈나무들을 위한 공간인 'YGDP Zone'을 열었다. 사진제공 YG

에는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권리 보호활동에 나섰다. 최두선 기자 sun@

더 이상 스펙, 눈치, 한계는 두렵지 않다

'가장 나답게 만드는 6가지' 질문이 있다면!

짧고 강력한 '인생질문' 들을 수록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 내 길을 찾아가는데 용기가 필요한 사람, 뚜렷한 목표가 없는 사람, 앞으로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지금 당장 '질문' 을 시작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나다운 삶이란 어떤 것일까?
제대로 된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러한 삶을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나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화제의 신간

가장 나답게 만드는 6가지 질문

6 QUESTIONS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이도권 지음

이도권 지음 | 276페이지 | 14,000원

일본은 지금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정치학 전공

아베 對 이시바, 역전극 가능할까

를 선언했다. 그는 '정직함, 공정함'이라는 정치 슬로건을 내걸고 모리토모(森友, 가케(加計)학원 문제로 아베 총리가 비판 받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정치에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아베 총리와의 차이를 부각할 의사를 밝혔

다. 현재 국회의원 표에서 아베 총리에게 크게 뒤지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지만, 그는 지방을 순회하면서 전국의 자민당원 표에 의한 뒤집기 가능성에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10일 출마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 이시바파의 간부는 "이 시기에 출마 선언을 하면 8월 13일부터인 '오분(お盆-우리분제)' 연휴 때 자민당 의원들이 지역 유권자로부터 이시바 지지를 요청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8월 10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보통 연휴가 되어 많은 국민이 고향으로 돌아갈 성묘를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시바 진영의 주장과 전략에 아베

총리 진영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베 총리와 가까운 의원들은 "이시바 씨가 총리에 대해 비판만 하고 있는데 그런 자세로는 당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 측에서는 상황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시바 전 간사장과 토론을 최대한 피하려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아베 총리 측은 TV 토론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태도를 정하지 않고 있던 이시하라(石原)파가 아베 총리 지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아베 총리 지지와 이시바 전 간사장 지지를 내분된 다케시타(竹下)파는 자율투표를 정식으로 정했다. 이것으로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5개가 아베 총리 지지가 되었고 국회의원 표로서는 아베 총리 지지는 70% 이상이 되었다. 이시바 전 간사장에 대한 국회의원 표는 현시점에서 이시바파와 다케시타파의 참의원 의원 등 총 40명 정도로 그치고 있다.

다만 총선거 방식이 어떤 선거부터 바

뀐 것이 변수다. 전국의 자민당원 표가 국회의원 표와 동수가 되면서 이시바 전 간사장에 대해 당원의 지지가 70%를 넘는다 면 그가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山口縣)에 부인 아키에(昭恵) 여사와 함께 내려가 부친 아베 신타로(安倍 晋太郎) 전 의사의 묘지를 참배했다. 그리고 9월에 열리는 자민당 총선거에 대해 자신의 출마 의욕을 표시했다. 그는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6년 전과 비교해 "나의 뜻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로운 3년 임기를 견디며 변함이 없는 뜻을 관철하는 기력, 체력 등이 과연 충분하냐는 것을 스스로 물으면서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의 건강 문제가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8월 말에 정식으로 총재 선거 출마를 밝힐 전망이다.

자민당 총선거까지 약 한 달. 한국에도 크게 영향을 줄 어떤 선거의 향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박병립의 중립, 직립
정치경제부 차장



일자리 걱정, 국민연금 걱정

일자리가 없는 국민은 일자리 걱정, 일자리가 있는 국민은 국민연금 걱정

에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국민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올해 취업자 증가수는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 5월 7만2000명, 6월 10만6000명으로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같은 저조한 취업자 증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9월~201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예산과 청년 일자리 추경도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취업자 증가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습이다. 상반기 집행실적은 총 280조2000억 원 중 62.1%인 174조1000억 원으로 목표 대비 11조5000억 원(4.1%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집중 관리 분야인 일자리 및 사회개발 분야(SOC)사업도 목표 대비 초과 집행했다. 일자리 사업은 관리대상 10조7000억 원 중 7조1000억 원으로 계획 대비 2.5%p, SOC 사업은 38조9000억 원 중 2.2%p 각각 초과했다.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 2조8000억 원,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지원 1조 원 등 3조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7월 말 기준으로 정부 목표인 70% 이상 집행했다. 정부가 야심 차고 속도감 있게 예산을 투입·집행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고용 쇼크의 늪'에서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다.

한편, 일자리를 가진 국민은 국민연금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실망감을 넘어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취지의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 수립을 놓고 연금 납입액 혹은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수급 연령을 늦추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

으로 알려졌다.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다. 퇴직 후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으로 설계됐으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 단위로 1세씩 늦춰져 65세로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즉, 연금을 받는 나이가 1952년생 이전은 60세이지만, 이후 출생 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게 돼 있다. 당시에도 연금을 받는 나이가 뒤로 밀린 것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거셌다.

그런데 다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민연금제도를 국민에게 부담되는 방향으로 칼집을 하려 하니 국민으로서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다만 실제 보험료를 인상과 의무가입기간 연장,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복수의 재정 건전화 방안이 하나의 제도 개선안에 모두 포함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현실적으로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수준에서 정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제도가 도입된 1988년 3%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0년째 제자리이며, 주요 선진국의 보험료율인 15~18%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이달 17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재정추계·제도발전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납부 기간 연장이든, 수급 연령 상향이든, 보험금 납부 금액 인상이든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며, 다음에도 이런 칼집이 없을 것이라는 법이 없어서 시름만 깊어진다. rby@

박석

한 나 영 바이오텍스진 마케팅팀 과장



쓸모없는 점은 없다

얼마 전 둘째를 출산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다. 친구는 의자에 앉자마자 풍성했던 머리숱이 빠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커리어우먼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연신 부러워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아함과 지성을 겸비한 사회인으로 살고자 했던 친구의 씩씩함만이 남아 있었다. 불현듯 몇 년 전 출생 때인 프랑스 여행에서 접했던 그림이 생각났다. "프랑스에서 미술관 투어는 교양인의 덕목"이라는 친구의 성화에 오르세 미술관 투어를 하게 됐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나 보던 유명한 작품이구나'라는 생각 외에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던 내 발걸음을 붙잡았던 그림 한 점, 그것은 신인상파 폴 시냐크의 '아비뇽 교향성'이었다. 수많은 점을 찍어 그린 점묘화다.

빨간색과 파란색 같이 보색의 점들로 가득 찬 그림은 영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미간에 주름 몇 가닥이 잡히고 있을 즈음 "조금만 뒤로 와서 보세요"라는 투어 가이드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나둘 발걸음을 뒤로 옮기는 순간 영 생동맞고 어울리지 않다고 생

각했던 색들이 조화롭게 혼합되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입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듯 가지각색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이 아닌가. 어릴 적 유행하던 '매직아이'가 떠올랐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사에서 말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있는 점들이 미래 어떤 시점에서 서로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학에서 정규 과목 대신 엉뚱하게도 글자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서체 과목을 수강한 스티브 잡스는 그로부터 10년 후 아름다운 글자체를 가진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게 된다.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지금 우리의 순간이 미래의 어떤 시점과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림 한 폭도 몇 걸음 떨어져 봐야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데에도 조금의 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기저귀를 치우느라 정신없는 내 친구의 오늘도 언젠가 환상적인 매직아이의 순간처럼 빛나지 않을까? 우리 인생에 쓸모없는 점은 없다.

기자수첩

김정웅 사회경제부/cogito@



도시재생 사업의 모순

도시재생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벽화'를 그리는 사업'이 아니다. 도시재생은 기간산업의 몰락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를 다시 경제활동이 가능한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좀더 개발론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낙후된 도시에 배후수요를 창출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사업'이라고도 요약할 수 있겠다. 독일 하펜시터, 프랑스 라 데팡스, 스페인 빌바오 등 도시재생 성공 사례로 이름난 도시 대부분은 벽화를 예쁘게 그린 곳이 아니라 새로운 기간산업을 일으키는 데 성공한 곳들이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겨지는 단어인 '배후수요'와 '직주근접'이 다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는 그다지 높지 않다. 반면 철도 노선 연장이나 기업입주, 소평물 등 복합시설 입주와 같은 개발이 발표될 때 해당 지역에서는 열광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이유가 당연히 집값 문제다. 일반적인 개발사업은 사업 발표 직후, 착공 시점, 완료 시점까지 3차례에 걸

쳐 뚜렷한 집값 상승 효과가 나타나지만, 도시재생 사업은 그렇지 못하다. 이는 도시재생을 실행하는 주체인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재생으로 인해 집값이 오를 가능성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크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직접 현황 조사를 실시해 시가 선정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과 똑같으므로 도시재생으로 인한 집값 상승 효과는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상한 발상이다. 도시재생으로 새롭게 변신한 도시를 만든다면서 정작 도시재생으로 인해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안 된다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 방향이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 노선인 것이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인근 집값은 오르지 못하게 막겠다는 말은 실상 앞으로 가면서 동시에 뒤로 가겠다는 말과 다름없는 형용모순이다. 지역 부동산 시장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가치 창출을 해내지 못한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김덕현
는설실 (02)799-6701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금융부 (02)799-2665	산업1부 (02)799-2648	산업2부 (02)799-2641	
자본시장부 (02)799-2664	국제경제부 (02)799-2643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사진팀 (02)799-2646			
광고접수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	
www.etoday.co.kr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이투데이 Media'는 브랜드다

절대! Passion

다르다! Difference

뛰어나다! Premium

이투데이 미디어는 타 매체보다 앞서서 세상의 흐름을 읽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최선의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투데이 미디어 임직원들은 항상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며, '빅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02)799-2600 구독문의 02)799-2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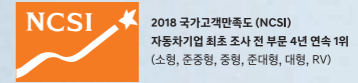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일간 창간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마이라이프
2015년 1월 1일 창간



경제전문 연예뉴스
비즈니스센터
2013년 10월 15일 오픈



다이내믹, 밸런스로 정교해진다.

Balanced Dynamic. 투싼 페이스리프트 출시



순간순간 밸런스를 조절하는 정교한 다이내믹을 완성하다.
8단 자동변속기 | HTRAC | 차세대 스마트스트림 디젤 1.6 신규 적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30%인하(기간: 2018년 12월 31일 출고분까지)



■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콜 서비스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 디젤 2.0 AWD 자동 8단(17)*: 복합 13.1km/ℓ(도상:12.3km/ℓ, 고속도로:14.3km/ℓ) | CO2 배출량: 145g/km | 배기량: 1995cc | 공차중량: 1720kg | 자동 8단(3등급) ▶ 디젤 2.0 AWD 자동 8단(18)*: 복합 12.7km/ℓ(도상:11.8km/ℓ, 고속도로:13.9km/ℓ) | CO2 배출량: 151g/km | 배기량: 1995cc | 공차중량: 1730kg | 자동 8단(3등급) ▶ 디젤 2.0 AWD 자동 8단(19)*: 복합 12.4km/ℓ(도상:11.6km/ℓ, 고속도로:13.6km/ℓ) | CO2 배출량: 154g/km | 배기량: 1995cc | 공차중량: 1775kg | 자동 8단(3등급) ▶ 디젤 2.0 2WD 자동 8단(17)*: 복합 14.4km/ℓ(도상:13.2km/ℓ, 고속도로:16.2km/ℓ) | CO2 배출량: 131g/km | 배기량: 1995cc | 공차중량: 1670kg | 자동 8단(2등급) ▶ 디젤 2.0 2WD 자동 8단(18)*: 복합 14.3km/ℓ(도상:13.2km/ℓ, 고속도로:15.3km/ℓ) | CO2 배출량: 134g/km | 배기량: 1995cc | 공차중량: 1680kg | 자동 8단(2등급) ▶ 디젤 2.0 2WD 자동 8단(19)*: 복합 13.8km/ℓ(도상:12.9km/ℓ, 고속도로:15.3km/ℓ) | CO2 배출량: 137g/km | 배기량: 1995cc | 공차중량: 1725kg | 자동 8단(2등급) ▶ 스마트스트림 디젤 1.6 AWD 7단 DCT(17)*: 복합 14.5km/ℓ(도상:13.9km/ℓ, 고속도로:15.3km/ℓ) | CO2 배출량: 130g/km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645kg | 7단 DCT(2등급) ▶ 스마트스트림 디젤 1.6 AWD 7단 DCT(18)*: 복합 14.5km/ℓ(도상:13.4km/ℓ, 고속도로:15.3km/ℓ) | CO2 배출량: 134g/km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665kg | 7단 DCT(2등급) ▶ 스마트스트림 디젤 1.6 AWD 7단 DCT(19)*: 복합 13.8km/ℓ(도상:13.4km/ℓ, 고속도로:14.5km/ℓ) | CO2 배출량: 137g/km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695kg | 7단 DCT(2등급) ▶ 스마트스트림 디젤 1.6 2WD 7단 DCT(17)*: 복합 16.3km/ℓ(도상:15.3km/ℓ, 고속도로:17.6km/ℓ) | CO2 배출량: 115g/km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580kg | 7단 DCT(1등급) ▶ 스마트스트림 디젤 1.6 2WD 7단 DCT(18)*: 복합 15.8km/ℓ(도상:15.0km/ℓ, 고속도로:16.8km/ℓ) | CO2 배출량: 118g/km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600kg | 7단 DCT(1등급) ▶ 스마트스트림 디젤 1.6 2WD 7단 DCT(19)*: 복합 15.3km/ℓ(도상:14.7km/ℓ, 고속도로:16.2km/ℓ) | CO2 배출량: 122g/km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630kg | 7단 DCT(1등급) ▶ 가솔린 1.6 티보 AWD 7단 DCT(17)*: 복합 10.9km/ℓ(도상:10.3km/ℓ, 고속도로:11.7km/ℓ) | CO2 배출량: 154g/km | 배기량: 1591cc | 공차중량: 1580kg | 7단 DCT(4등급) ▶ 가솔린 1.6 티보 AWD 7단 DCT(18)*: 복합 10.7km/ℓ(도상:10.0km/ℓ, 고속도로:11.9km/ℓ) | CO2 배출량: 157g/km | 배기량: 1591cc | 공차중량: 1600kg | 7단 DCT(4등급) ▶ 가솔린 1.6 티보 AWD 7단 DCT(19)*: 복합 10.4km/ℓ(도상:9.8km/ℓ, 고속도로:11.3km/ℓ) | CO2 배출량: 163g/km | 배기량: 1591cc | 공차중량: 1630kg | 7단 DCT(4등급) ▶ 가솔린 1.6 티보 2WD 7단 DCT(17)*: 복합 11.9km/ℓ(도상:11.0km/ℓ, 고속도로:13.3km/ℓ) | CO2 배출량: 141g/km | 배기량: 1591cc | 공차중량: 1535kg | 7단 DCT(3등급) ▶ 가솔린 1.6 티보 2WD 7단 DCT(18)*: 복합 11.6km/ℓ(도상:10.8km/ℓ, 고속도로:12.7km/ℓ) | CO2 배출량: 144g/km | 배기량: 1591cc | 공차중량: 1535kg | 7단 DCT(3등급) ▶ 가솔린 1.6 티보 2WD 7단 DCT(19)*: 복합 11.3km/ℓ(도상:10.6km/ℓ, 고속도로:12.4km/ℓ) | CO2 배출량: 148g/km | 배기량: 1591cc | 공차중량: 1565kg | 7단 DCT(4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위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 급제동,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차량/대리점의 커스터머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배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